



제3025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3040 부자 7.8만명... 금융자산 100조 보유 4

개도국 60% 디폴트 위기 직면 6

코스피(2일 전주 대비)	코스닥
2434.33 (-3.53P)	732.95 (-0.61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1299.90 (-23.80원)	3.616% (-0.028%p)

## 조던 신발·피카소 그림 ‘영끌’ 실종... 新재테크의 몰락

### 스페셜 리포트

#### 고금리가 바꾼 재테크 풍경

3분기 미술품 경매 쪼그라들고  
스니커즈 한정판 가격 반토막  
금리 급등 타격...영끌족 내몰려  
MZ세대 열풍 식자 시장 재편

농구 레전드 마이클 조던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는 1억 원짜리 ‘1985년 판 에어조던 1 시카고’, ‘무니 히메(파라곤) 알보’라는 이름표가 붙은 500만 원짜리 관엽식물 ‘몬스테라’,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50억 원대 피카소 작품.

지난해 재테크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신(新)재테크 방법들이다. 저금리 시대 MZ세대들은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을 통해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하며 쓸쓸한 이익을 거뒀지만, 최근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관련 시장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1년 새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재테크 시장도 빠르게 재편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5면

MZ세대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아트테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분석 결과 낙찰총액은 439억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약 953억 원)의 4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국내 미술품 경매 낙찰률도 하락했다. 올해 3분기 경매시장에 출품된 6404점 중 3880점이 낙찰돼 낙찰률은 60.59%로, 전년 동기(70.05%) 대비 9.46%포인트(p) 감소했다.

김영성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은 “미술시장의 수요층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뜨거웠던 MZ세대의 아트테크 열풍이 잦아들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뜨거웠던 MZ세대의 아트테크 열풍이 잦아들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니커테크 시장에서 원가의 수배~수십 배에 거래되던 ‘나이키 에어 조던 4 x 카우스’. 최근 거래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리셀 플랫폼 크림에 따르면 나이키 조던 시리즈 중 큰 인기를 끌었던 ‘조던 1 레트로 하이 OG 시카고 2022’ 모델은 지난달 9일 99만 원에 거래됐으나, 이달 4일 기준 시세는 46만 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조던1 미드 라이트 스모크 그레이’ 모델은 9월 63만9000원에 거래되던 것이 4일 현재 17만4000원까지 추락했다.

꾸준히 모은 돈을 스니커테크에 투자하고 있다는 양진형(29) 씨는 “언론을 통해 스니커테크와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고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발을 실제로 신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리셀을 목적으로 유입이 된 사람들이 급증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급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중고플랫폼도 늘어난 데다 한정판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그만큼 프리미엄도 하락하는 것 같다. 이대로면 스니커테크 시장도 시들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급등하는 금리에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최근 금리는 높아지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영끌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섰던 MZ세대는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대출 이자 부담은 커지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는 “자신의 수익률을 점검해 보고 만일 대출금리보다 높지 않다면 이른 시일 내 갚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기자 ljj0403@

크 열풍이 잦아 든 것을 관련 시장 위축의 요인으로 꼽았다. 한정판 스니커즈를 다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스니커테크도 최근 프리미엄 미입 가격이 반토막 수준이 됐다.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삼성디스플레이 VOLED(블레드) 합창단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본지가 주최한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은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 ‘함께하는 기업’들의 CSR 활동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2012년 첫걸음을 내디딘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다. ▶관련기사 2·3면 고이관 기자 photoeran@

## 더 강경해진 尹 “정유·철강에도 업무명령 발동할 것”

### “정상운영 방해·위협은 범죄 관계 장관 끝까지 엄정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응해 정유·철강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불법·폭력 행위와 정상운영 방해를 비판한 뒤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 ▶관련기사 8·12면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운영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운영 차주에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며 “관계 장관들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이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정상운영 운전자와 업무 복귀 운전자들을 정부가 책임

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철강 등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는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윤호 기자 uknow@

I Dream  
우주여행  
“아빠~ 우주여행 다녀와!”

민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 위기에서 빛난 나눔경영... '선한 영향력' 더 널리 퍼진다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시상식'이 열렸다. 심사위원장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백상민 한국생산성본부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이사 등이 기획재정부장관상 등 각 부문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올해로 11회째... CSR 축제의 장 기재부 장관상에 '포스코나눔재단' 17개 부문 심사, 22곳 수상 영예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구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교육 불평등, 정보 격차와 소외 문제, 결식과 돌봄 부재 문제가 대두됐다. 기후 변화, 필수 자원 고갈 등 또 다른 글로벌 위기의 여파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가 됐다.

본지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넘어 사회 캠페인, 경영 혁신, 교육 기회 보편화 등 기업의 진화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 지혜를 나누는 건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개인과 공동체, 기업과 구성원,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기록 공모 행사인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필름페스티벌'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필름페스티벌'은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도모한 '함께하는 기업'들의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는 행사다.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뎠던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다.

매년 100여 개의 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는 물론, 중·고·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CSR 필름페스티벌은 우리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본지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후원했다.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과 김부열 심사위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영아 심사위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혁신사업단 단장),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병원 위원장은 "ESG 경영의 확산에서 볼 수 있듯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이 행사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CSR 필름페스티벌에는 코로나19 충격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경영'을 강조한 작품들이 많았다. 심

사결과 17개 부문에서 기업과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 22곳이 최종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획재정부 장관상인 상생경제 부문에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항 및 광양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관·특수학교 4개소에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VR 직업훈련 센터를 구축해 안전하고 즐겁게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SK텔레콤과 AI 기술 스타트업 투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인 과학문화 저변확대 부문을 수상했다. SK텔레콤과 투아트는 AI 기술로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인 건강한 사회 부문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수상했다. 스타벅스는 2015년부터 매장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으로 친환경 퇴비를 제작하는 등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제적인 재활용을 해왔다. 이 밖에 따뜻한 사회부문은 락앤락이, 기술나눔 부문은 삼성전자와 세이브더칠드런이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의 희망나눔 부문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7년 '볼레드(VOLED)합창단을 창단해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과 사회성 향상, 자존감 회복에 기여했다.

재능 나눔 부문은 사회복지법인 씨제이나눔재단이 수상했다.

환경부 장관상인 자원 순환 부문은 코오롱이 받았다. 코오롱은 전국 주요 사업장 7곳에 일회용 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해 폐마스크를 모으고, 이를 코오롱 브랜드 매장에 사용할 재활용 옷걸이 2만9000개로 제작했다.

고용노동부장관상인 꿈꾸는 사회 부문은 한샘이 수상했다. 밀알복지재단은 평등한 사회 부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활기찬 사회 부문에서 수상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위원장상(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을 받았다. 상생 성장 부문은 본아이에프가, 지속 성장 부문은 골프존뉴딘힐딩스가 수상했다.

서울특별시 시장상인 안심 돌봄 부문은 재단법인 다솜이재단이 수상했다. 다솜이재단은 2008년 설립된 이래 무료 간병을 통해 132억 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재단법인 넥스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상의 글로벌 나눔 부문에서, CKL사회공헌재단과 착한여행은 글로벌 공헌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이다숨 기자 citizen@

##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수상작

상장명	수상부문	수상기업	작품명
기획재정부 장관상	상생경제 부문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인 취업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VR' 직업훈련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문화 저변확대 부문	SK텔레콤(주), 투아트	시, 시각장애인의 따뜻한 눈길에 되어준다.
	건강한 사회 부문	스타벅스코리아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스타벅스의 자원순환 활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따뜻한 사회 부문	(주)락앤락	자원순환 문화를 위한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
	기술 나눔 부문	삼성전자(주), 세이브더칠드런	삼성 스마트스쿨, 더 넓은 세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	희망 나눔 부문	삼성디스플레이	발달장애청소년의 볼레드합창단 "우리는 모두 슈퍼스타"
	재능 나눔 부문	사회복지법인 씨제이나눔재단	[CJ나눔재단] 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진정한 자립을 위하여 '드림어게인'
환경부장관상	자원 순환 부문	(주)코오롱	마스크의 경고, 코오롱의 해답
	꿈꾸는 사회 부문	한샘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
고용노동부장관상	평등한 사회 부문	밀알복지재단	청각과 시각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투표할 수 있을까? 시청각장애인 투표 V-log   밀알복지재단
	활기찬 사회 부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에 행복을 더하는 Happy+ 공모사업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	하나금융그룹	하나파워온 케어 - 출산과 육아가 미혼모의 꿈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상생 성장 부문	본아이에프(주)	본죽, 본죽&비빔밥 사장님들이 전하는 속편한 행복
	지속 성장 부문	골프존뉴딘힐딩스	SWING YOUR DREAM
서울특별시 시장상	안심 돌봄 부문	(재)다솜이재단	따뜻한 손이 만든 기적
	글로벌 나눔 부문	(재)넥스재단	This is Our Kibera (여기가 우리의 키베라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상	글로벌 공헌 부문	GKL사회공헌재단, 착한여행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우리 동포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선물 '미혼한부모의 진정한 자립을 위하여'

## 심사평

### "기업 CSR 활동 '진정성' 담아 계속 진화할 것"

#### 백상민 한국생산성본부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그 진화 속에는 기업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출품작 하나하나가 진정성을 담고 있어 모두 귀중한 영상들이었다."

백상민 한국생산성본부 본부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올해 행사에 제출된 영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백 본부장은 "기업은 윤리적 책임과 더불어 인도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부터 대한민국 사회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응모작에서도 사람을 지키자, 사회를 지키자, 그리고 지구를 지키자는 ESG에 대한 주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수상작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기준 항목에 따라 영상별로 채점을 진행한 후 1차 채점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상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시상자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비록 최종 선정 작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강문정 기자 kangmj@

## 환영사 및 축사

###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확산돼야"

####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 전반에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박 명예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환영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명예회장은 "이 행사가 앞으로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확산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다숨 기자 citizen@



### "CSR는 기업 영속성 위한 투자"

####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축사를 통해 "기업도 사회 구성원 중 하나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CSR를 단순한 사회봉사나 비용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CSR에는 '안전'도 중요한 요소"라며 "기업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민재 기자 2mj@



# “CSR, 지속가능경영 밑거름... 미래세대 위해 싹 틔워야”

## 행사 이모저모

지적장애 합창단 ‘블레드’ 하모니 수상작 영상에 참석자들 큰 호응

“대한민국 선한 영향력 확대 위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 노력 절실”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우리를 위한 무대가 있다는 걸 알아). For we are glorious(우린 찬란한 존재니까).”

2일 ‘2022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이 열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는 삼성디스플레이 VOLED(블레드) 합창단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블레드 합창단은 지적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4성부 합창단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후원으로 2017년 창단됐다.

축하공연 무대에 선 블레드 합창단은 아이유의 ‘좋은 날’,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디스 이즈 미(This is me)’, BTS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를 차례로 불렀다. 합창단이 ‘우리는 누구나 특별하다’는 의미를 담은 노래 ‘디스 이즈 미’를 부를 때는 행사장이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블레드에서 6년째 활동하고 있는 김은세 양은 “무대에 설 때면 내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조대성 블레드 상임지휘자는 “엄마 눈도 잘 못 쳐다보던 학생들이 이제 지휘자의 눈을 보며 노래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합창단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성을 길렀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CSR 행사로 발돋움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상생경제 부문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은 포스코1%나눔재단의 육심주 차장이 사례를 발표했다. 수상작들의 하이라이트 영상도 상영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SK텔레콤 △스타벅스코리아 △본아이에프 △하나금융그룹 △한샘 △삼성전자 △세이브더칠드런 △락앤락 △코오롱 △골프존뉴딘홀딩스 △밀알복지재단 △다솜이재단 △사회복지법인 씨제이나눔재단 등의 활동도 소개됐다.

행사에서 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시상상(안심 돌봄 부문)을 받은 정훈희 다솜이재단 팀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간병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솜이재단이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다솜이재단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기업 1호다. 2004년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와 ‘함께 일하는 재단’이 협력해 만든 교보다솜이간병봉사단이 이듬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되면서 재단법인으로 도약했다.

이중환 다솜이재단 팀장은 “맨 처음에는 간병비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간병을 하다가 그것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됐고, 지금은 병원 파견사업과 장기요양사업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간병 서비스를 알아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솜이재단과 연계돼 있는 병원 등으로 연결해 신뢰할 수 있는 간병을 받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kangmj@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 명예회장은 “기업이든, 단체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분들에게 좋은 일일 뿐 아니라 공헌하는 쪽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VR 직업훈련센터 구축... 발달 장애인 자립 지원”

### 포스코1%나눔재단

“발달 장애인 고용률 28% 불과 안전한 현장실습으로 취업 지원”

“2011년 임원·부장들의 급여 1% 기부활동을 시작으로 2013년에 재단이 설립돼 전 직원의 98%가 매월 동참하는 나눔의 문화를 구축했다.”

육심주(사진) 포스코1%나눔재단 차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필름페스티벌’에서 사례발표를 통해 포스코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이하 재단)은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의 기부와 회



사의 매칭 그랜트(1:1 동반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이다. 재단 설립 초기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포스코그룹의 정체성에 맞춰 금속 무형문화재 보존사업과 다양한 문화공연을 진행하는 등 철과 관련된 공헌사업을 전개했다. 2019년부터는 재단의 사업 분야를 △미래세대 자립지원 △다문화가정 자립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 4대 분야로 재편했다. 이에 맞춰 미래 세대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했다. 장애인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단의 지원사업인 ‘VR(가상현실) 직업훈련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상생경제 부문)을 받았다.

육 차장은 “발달 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들에게 의지하게 된다”며 “자립하려면 직업훈련 같은 교육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취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의 28%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 능력이 낮아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

적인 직업훈련 환경은 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발달장애인은 직업훈련의 기회를 얻기도, 현장 실습 등의 환경을 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재단은 광양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과 특수학교 4곳에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VR 직업훈련센터를 구축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VR 기기를 통해 직업훈련 과정에서 안전하게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호응도 높다. 재단은 국가유공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첨단보조기구 지원, 자립준비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두드림’,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 여성의 취업경쟁력 강화 등 여러 취약계층의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민재 기자 2mj@

## “AI 음성인식 통해 시각장애인 삶의 질 향상”

### 투아트

“음성안내 서비스 설리번 플러스 SK텔레콤과 협업 저변 확대”

“스마트폰을 쓸 때 ‘아리아’를 불러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시각장애인만 음성 인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수원(사진) 투아트 대표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 스타트업 투아트는 이날 행사에서 SK텔레콤과 공동으로 과학문화 저변확대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투아트와 SK텔레콤은 AI가 주변 사물, 사람, 문자 등을 인식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설리번 플러스’를 출시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담긴 인공지능 기술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투아트는 2018년 시각장애인들의 필수 앱인 AI 기반 시각보조 음성안내 서비스인 설리번 플러스를 내놓았다. 지난해 말 SK텔레콤 음성 AI ‘누구’(NUGU)와 접목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성이 좋아졌다. 현재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조 대표는 “북한을 빼고 전 세계에서 설리번 플러스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에게 라면과 짜장라면은 봉지 소리란만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짜장라면을 라면으로 착각해 조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투아트의 설리번 플러스가 출시된 후 라면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옛말이 됐다. 시각장애인이 설리번 플러스를 사용하면 지폐 인식(아직 참고용)과 옷의 색상, 주변 환경 모습 등을 알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투아트는 최근 기존 설리번 플러스에 더해 시각장애인의 일상 업무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설리번 A’를 개발하기도 했다. 설리번 A는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시각장애인에게 읽어 주거나 요약해 주고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시청각장애인, 촉수화 지원... 참정권 보장”

### 밀알복지재단

“교육기회 적고 정보 사각지대 헬렌켈러센터 통해 권리 보호”

“우리 사회에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동시에 겪는 분들이 5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형석(사진)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필름페스티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이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이날 ‘시청각장애인 투표 브이로그(V-log)’로 고용노동부장관상(평등한 사회 부문)을 받았다. 재단은 시청각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 사업을 이번 영상에 담아냈다.

재단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상의 15개 장애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아 다른 장애 유형보다 권리보장이 미흡하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교육받을 기회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촉수화(촉각을 활용한 수어)·점자 등의 공적 지원 서비스도 부족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법적 보호가 전무한 수준이어서 실태 조사 등 통계도 없는 상황”이라며 “재단은 2019년부터 헬렌켈러센터를 만들어서 시청각장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렌켈러센터는 시각과 청각 모두에 장애가 있어 투표가 어려운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의 주 언어인 촉수화 사용을 통한 투표 참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투표에 도움을 원하는 시청각장애인이 헬렌켈러센터에 연락하면 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손에’라는 시청각장애인 전용 단말기를 지원해 이들의 소통을 돕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민재 기자 2mj@

# “신흥부자, 주식 굴러 富 축적... 코로나 댄 빛부터 값있다”

## KB금융그룹 '韓 부자 보고서' 발간

3040부자 7.8만명, 금융자산 100兆  
국내외 변동성 커지자 대출·투자 줄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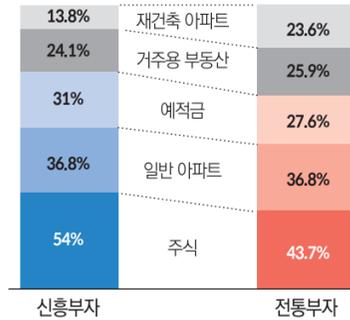
‘전통 부자’는 물론 이제 막 부자가 된 ‘신흥 부자’도 투자의 최종 종착지는 ‘부동산’이었다. 다만 최근 급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규대출과 투자는 줄이고 예금에 자산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KB금융그룹은 4일 한국 부자의 현황, 투자행태, 미래 투자 방향 등을 분석한 ‘2022 한국 부자(富者)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신흥 부자와 전통 부자를 비교하고, 이들의 부(富) 축적 방식과 투자 방식의 차이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 10억~20억 원을 보유한 30~49세 개인을 ‘신흥 부자’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신흥 부자는 7만8000명으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전체 부자의 18.4%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99조5000억 원으로 부자의 총금융자산 중 3.5%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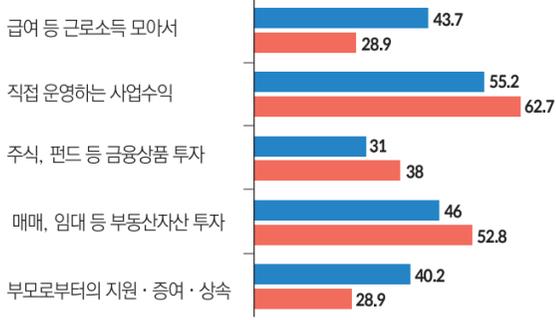
### 종자돈을 마련한 후 자산을 불린 방법



신흥 부자는 자신이 금융자산 10억 원을 넘기며 부자가 되도록 한 부의 원천을 묻자 32.2%가 사업소득을 꼽았다. 이어 부동산 투자(26.4%)와 상속·증여(20.7%)가 뒤를 이었다.

신흥 부자는 7억 원 정도의 종자돈을 만든 뒤 현재의 부를 이루기까지 자산 증식의 가장 주된 방법으로 주식 투자(54%)를 이용했다. 거주용 외 아파트(36.8%), 예·적금(31%), 거주용 부동산(24.1%) 등이 뒤를 이었다. 전통 부자와 비교하면 신흥 부자는 주식(+10.3%p)과 예적금(+3.4%p) 등의 금융상품이나 금·보석, 디지털자산 등 기타자산(+3.6%p)으

### 신흥부자의 종자돈 형성 방법 (단위 : %)



로 부를 확대한 경우가 더 많았다. 신흥 부자가 향후 목표로 하는 총자산 구성비는 부동산자산 52%, 금융자산 36%로 전통 부자와 거의 유사했다.

부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인 2020~2021년 금융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부동산자산 비중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총자산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금융자산 비중은 2019년 41.2%에서 2021년 36.6%로 낮아진 반면 부동산 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54.3%에서 59%로 상승했다. 기타자산 비중은 4.5%에서 4.4%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이는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것보다는 팬데믹 기간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자산 가치가 더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 기간 부자는 부채 관리에 보수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도 자산이다’는 말과 달리 한국 부자의 61.8%는 ‘부채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부채를 보유한 부자의 비중이 2019년 56.5%에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3.8%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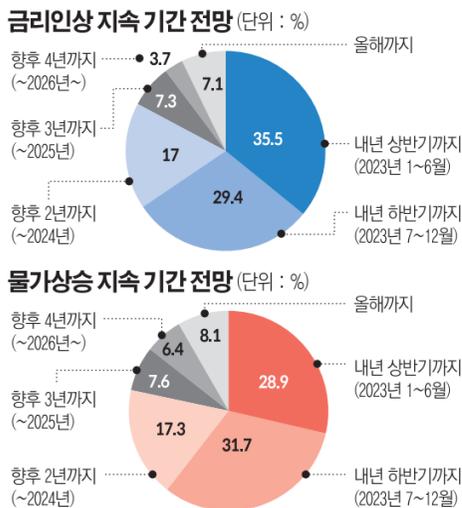
투자 성향도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부자들은 당분간 급리 인상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1년 정도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80~90%는 예·적금과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자산에 대해 현재 투자 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KB금융은 “투자 환경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부자들은 위험요인을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투자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금융투자 리스크가 큰 시기라고 판단하고 단기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달러 매입을 계획하는 한편, 주식은 신규자금을 투입하기에 적합한 시기를 두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대중부유층 10명 중 6명 “금리·물가 상승 내년께 종료”

(1억~10억원 미만 자산가)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산관리 고객 분석’

대중부유층 10명 중 6명은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6%대를 기록하면 투자자산을 예금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4일 ‘2022년 자산관리 고객 분석 보고서: 경기변동기의 대중부유층’을 발간했다. 대중부유층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해 고액자산가(부자)와 중산층 사이에 위치한 계층을 뜻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중부유층에 대한 부의 성장 경로뿐 아니라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인식, 경기변동기에 대응한 자산 관리 계획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에 조사한 대중부유층의 평균 총자산은 11억 5896만 원(금융자산 2억7591만 원, 부동산 8억5323만 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0억4208만 원이다.

대중부유층은 예·적금, 대출 행태에서 금리변화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 시중금리 추가 상승 여부에 따라 포트폴리오 재편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예금금리가 연 5%대에 이르면 37.2%가, 6%대에서는 58.1%가 투자자산을 예금으로 옮길 것이라고 답해 향후 여머니무브가 확대될 전망이다. 11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연 4.39%며, 5%대 예금도 등장한 상황이다. 반면 64.9%는 대출금리가 6%대에 달하면 신규 대출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이뤄지면 가계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70%의 응답자는 금리와 물가 상승이 내년까지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년 중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의 가치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7.1%가 올해까지, 35.5%

“예금금리 6% 댄 투자자산 옮기고 신규 대출 포기”  
“주식·부동산·코인 하락... 금·달러 가치 상승 예상”

가 내년 상반기까지, 29.4%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은 8.1%가 올해까지, 28.9%가 내년 상반기까지, 31.7%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년간 주식은 -5.4%, 부동산 -8.3%, 가상자산 -13%의 가격 하락을 내다봤다. 반면 금과 달러는 각각 3.6%, 5.0% 오를 것으로 봤다.

대중부유층의 56.8%는 최근 경기변동하에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했다. 이중 31.9%는 투자·운용 방식을 조정했으며, 28.5%는 기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로 했다. 17.4%는 경제 동향을 좀 더 관망하기로 했다.

향후 1년간 늘리고 싶은 금융상품으로는 예·적금이 29.0%, 주식 21.2% 순이다. 투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15.0%)를 원하는 응답자가 축소(11.8%)에 비해 3.2%포인트 많았다.

이재영 기자 ijj403@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한 20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안내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원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 지원
<p><b>지원대상</b>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p> <p><b>지원품목</b>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등(클린사업 홈페이지 참고)</p> <p><b>지원한도</b>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70%)</p>	<p><b>지원대상</b>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p> <p><b>지원품목</b>   위험기계교체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안전검사대상 노후(30년 이상) 위험기계(6종*)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위험공정개선 : 부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추락·끼임 고위험 3대 업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 중 중분류 코드가 20900, 21800, 22900인 경우에만 한함</p> <p><b>지원한도</b>   위험기계교체 : 교체 비용의 50%, 최대 7천만원 한도 위험공정개선 : 개선 비용의 50%, 최대 1억원 한도</p>
<p><b>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 지원</b></p> <p><b>지원대상</b>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p> <p><b>지원품목</b>   신기술을 활용하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등 (로봇작업 스마트통합안전시스템, 이동식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고소작업대 과속승행방지장치 등 클린사업 홈페이지 참고)</p> <p><b>지원한도</b>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80%, 단,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이후부터)</p>	<p><b>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이후 변경 예정 사항('23년 1월 중)</b></p> <p><b>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b>   (추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p> <p><b>별표 3</b>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식품제조업, 음료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가구 제조업, 수도업 등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그 밖의 제조업 등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p>
<p><b>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원</b></p> <p><b>지원대상</b>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하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p> <p><b>지원품목</b>   시스템베게, 낙하물방지망·추락방호망·수직보호망 등</p> <p><b>지원한도</b>   건설현장 당 최대 3천만원 한도(시스템베게, 수직보호망은 공단 조건표 기준 적용)</p>	<p><b>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b></p> <p><b>신청기간</b>   2023. 1월중(예정) ~ 재원소진 시까지</p> <p><b>제출서류</b>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서 등</p> <p><b>제출방법</b>   온라인신청(clean.kosha.or.kr), 우편 또는 방문 제출</p> <p><b>문의전화</b> : 1544-3088</p>
<p><b>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b></p> <p><b>지원대상</b>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한 사업장(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우선 지원)</p> <p><b>지원품목</b>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등</p> <p><b>지원한도</b>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상환)</p>	<p><b>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b></p> <p><b>신청기간</b>   2023. 1월중(예정) ~ 재원소진 시까지</p> <p><b>제출서류</b>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서 등</p> <p><b>제출방법</b>   온라인신청(anto.kosha.or.kr)</p> <p><b>문의전화</b> : 1644-4555</p>
<p><b>고위험·스마트·추락·융자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b></p> <p><b>신청기간</b>   2023. 1월 이후(개시일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재원소진 시까지</p> <p><b>제출서류</b>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융자금 지원 신청서 등</p> <p><b>제출방법</b>   온라인신청(clean.kosha.or.kr), 우편 또는 방문 제출</p> <p><b>문의전화</b> : 1544-3088</p>	<p><b>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b></p> <p><b>신청기간</b>   2023. 1월중(예정) ~ 재원소진 시까지</p> <p><b>제출서류</b>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서 등</p> <p><b>제출방법</b>   온라인신청(anto.kosha.or.kr)</p> <p><b>문의전화</b> : 1644-4555</p>

# “돈 되는 줄 알았는데... ‘아·식·스 테크’ 1년새 투자 반토막”

〈아트테크·식물테크·스니커테크〉

## 빠르게 발 빠는 MZ세대

“단순히 투자를 목적으로 장래성만 보고 투자한 것이 발등을 찌른 것 같아요. 자본력이 약한 MZ세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다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유동성이 약해지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투자금이 혈값이 된 것이죠.”

저금리 시대 2030세대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저성장 시대에 태어나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라 암울한 전망 속에서 이들에게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살아남기 위해 투자에 나선 이들은 전통적 재테크인 부동산이나 주식에 만족할 수 없었다. 가상자산은 물론 아트테크, 식물테크, 스니커테크 등 신(新)재테크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다.

작년부터 2000만 원을 종잣돈으로 신재테크에 투자했다는 김정민(29·가명) 씨는 아트테크, 식물테크, 스니커테크 등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작년만 해도 아트테크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고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며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데사를 통해 쿠사마 야요이 작품의 지분을 구매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다소 죽어 경매가 열려도 대부분 유찰이 된다. 작품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니 사실상 묶인 돈이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아트페어에서 유망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작년만 해도 미술시

아트테크 유망작가 작품들 유찰  
쑥쑥 크던 식물테크 시장도 ‘시들’  
스니커테크 ‘큰손’ 중국인도 손바

고물가·고금리에 ‘투자열기’ 식어  
“MZ세대 당분간 재테크 신중모드”

장이 활발했고, 경매시장에서 유찰률도 낮았기에 수익성을 기대했다. 하지만 1년 새 시장이 확연히 달라졌다.

김 씨는 “작년에만 해도 아트페어가 열리면 좋은 그림을 먼저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오픈런이 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대구국제아트페어를 방문했는데 다소 한산한 모습이였다. 작년만 해도 1차 시장에서 바로바로 팔리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울리는 사려는 사람이 없더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는 아트테크뿐만이 아니다. 유명한 신재테크로 떠올랐던 식물테크 시장도 사그라들었다.

김 씨는 대표적인 ‘식(植)테크’로 꼽히는 몬스테라 알보에 투자했다. 그는 “작년만 해도 몬스테라 알보의 경우 종자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게 거래됐으나 아젠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이 식물을 키우면 두 달에 한 번 잎이 나오는데 하얀색 잎이 나오면 잎사귀를 떼서 한 장에 20만 원 수준으로 팔았다. 그런데 지금은 종자 가격 자체가 크게 하락한 데다 사려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7월 서울 용산구 HDC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희귀식물 판매 행사장이 희귀 식물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1년간 1000만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했다. 물론 아직 미술품이나 식물을 소유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팔면 어느 정도 손해는 보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수년간 스니커테크에 매진했던 정호일(31) 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정 씨는 20대 중반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서 일하면서 한정판 운동화 수집에

눈을 돌렸다. 그가 5년간 모은 신발만 대략 200켤레 정도다. 들인 돈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

정 씨는 “스니커테크란 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한정판 운동화 수집을 했고, 중고시장에서 되팔며 이익도 얻고 그랬다”면서 “취미 생활로 시작한 게 어찌 보면 재테크 수단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 씨는 “물론 한정판 운동화를 원가에 주고 사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 리셀 시장에서 한정판 운동화 가격은 내려가진 않는다”면서 “다만 최근 몇 달 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구매하려는 사람은 없어져 가고, 오히려 시장에 물량은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니 가격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큰손들이 사라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봤다. 정 씨는 “작년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고 큰돈을 제의하는 문의가 많았다. 한국 리셀 시장에서 구매해 중국에서 더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것 같았다”며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씨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MZ세대는 자본 여유가 없어서 투자 자체를 자제하는 것 같다”며 “그래도 내년에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아젠(스니커테크) 시장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기자 lly0403@

## 고금리 이자폭탄에 ‘영끌족’ 비명

### ‘전통 재테크’ 부동산도 외면

‘30대 이하’ 주택매매거래 비중  
작년 25.7%→올 3분기 22.8%

30대 이하 주택매매거래 비중	
분기	주택매매거래 비중
2021년 4분기	25.7%
2022년 1분기	25.3%
2분기	24.3%
3분기	22.8%

#. 20대 후반의 직장인 A 씨는 2년 전 한창 집값이 오르는 기미가 보이자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뒤 전세를 내졌다. 당시만 해도 저금리 기조로 은행에서 2%대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올려 투자)’로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최근 금리가 치솟으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올해 금리가 5%대까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두 배 이상 커졌다. 게다가 전세를 살던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 당장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니 최근 전세 시세가 현저히 낮아져 고민이다. 세입자에게 내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버거운 상황이 됐다.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금리 당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2030세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재테크로 꼽히는 부동산에 영끌을 통해 투자했던 MZ세대들이 고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동산 시장에 매매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집값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데다, 손해를 보고 집을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주택매매거래 비중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30대 이하의 주택매매거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5.7%, 올해 1분기

25.3%, 2분기 24.3%, 3분기 22.8%로 추락했다.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연령별로 가장 높은 거래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3분기엔 60대 이상 주택매매거래 비중이 23.6%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2.9%로 뒤를 이었다.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30세대의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올해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한해 주담대비율(LTV)을 80%까지 늘려주고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영끌족도 사라지고 있다.

MZ세대 영끌족이 내년에도 부실 차주로 변해 빚더미에 앉을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영향으로 변동형 주담대를 이용해 수익 원익 대출을 받아 집을 산 MZ세대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은 ‘영끌족’을 포함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며 “빚더미에 앉은 영끌족으로 인한 리스크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haha@

The 59th Annual Trade Day

# 제59회 무역의 날

## 도전하라 무역강국! 도약하라 대한민국!

〈삼성전자 회장〉

# 이재용 '혁신·안정' 조화 방점... '뉴삼성' 비전 구체화 촉각

## 삼성전자 이번 주 내년도 정기 인사

삼성전자가 이번 주 내년도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이르면 5일 또는 6일 사장단 인사를 하고 임원 인사, 조직 개편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 후 첫 인사인 만큼 '뉴삼성' 비전을 구체화할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는 경영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안정 속 혁신'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장단 인사에 이어 임원 인사, 조직 개편을 차례로 진행한다. 한중희 디바이스경영(DX) 부문 부회장, 경제현 반도체(DS) 부문 사장 등 '투톱 체제'는 유지하되 30·40 젊은 리더를 발탁하고 삼성전자 역사상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탄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10월 돌연 사임한 이재용 전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 후임도 발표한다.

시장에선 반도체 가격의 지속 하락, 가

## 한중희·경제현 투톱 유지 안정화

30·40 젊은 리더 발탁으로 혁신 그룹 첫 여성 CEO 탄생 가능성 부사장·상무급서 쇄신인사 예고

## 李, 회장 취임 첫 중등으로 출장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본격화

전 수요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 경영 환경 역시 안갯속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사장단의 경우 파격적 변화보다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중희·경제현 '투톱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사장·상무급에서는 경영 위기 돌파와 긴축 경영을 위한 '쇄신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삼성전자는 1일 부사장, 상무 등 일부 임원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DS에서만 부사장 10여 명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다 상무급 임원까지 포함하면 수십 명의 임원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부사장·상무급 퇴임 인원 규모를 늘리면서도 30대와 40대의 젊은 리더, 여성 CEO를 발탁하며 '혁신'과 안정

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선 삼성이 선대회장 시절부터 여성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성 CEO 발탁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유력 여성 사장 후보군으로는 이영희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센터장(부사장)과 양혜순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 홍유진 무선사업부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한편 인사 등 주요 업무를 마무리한 이재용 회장은 4일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 출장길에 오르며 '글로벌 네트워크' 본격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를 방문해 지난해와 유사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을 제외한 LG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이미 인사를 마무리한 기업들 역시 위기 속 안정을 꾀하는 한편 미래 준비와 불필요한 경비 절감 등 긴축 경영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주요 그룹들은 이번 인사에서 최고 경영진을 대부분 유입시키며 조직 안정과 함께 미래 사업에 힘을 싣

고자 그룹 내 '재무통'에 요직을 맡겼다.

SK그룹에서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4연임했으며 장동현 SK(주)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 CEO도 유임됐다. LG그룹도 대부분 CEO가 재신임을 얻었다.

주요 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동시에 미래 준비도 가속화했다. LG그룹은 주력 사업인 배터리와 전장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미래 설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작년(15명)의 2배에 달하는 29명의 승진자가 나왔고 젊은 임원도 대거 발탁했다.

현대차그룹은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 미래사업 분야의 컨트롤타워인 '글로벌 전략 오피스'를 신설하며 미래 먹거리인 신사업 분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특히 전동화 전환과 자율주행, 미래 항공모빌리티(AAM),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미래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강태우 기자 burning@

## “개도국 60% 디폴트 위기”... 세계경제 ‘新퍼펙트 스톰’ 오나

18개월새 부도 위험 9개국 늘어 채무조정 필요한 부채만 260兆

“美 등 선진국 수출 차질 불가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세계 경제가 새로운 ‘퍼펙트 스톰(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 금리 상승과 강달러로 인해 재앙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을 위험에 놓이게 됐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경종을 울렸다. 경제학자들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위기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WB는 올해 초 약 12개국이 내년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저소득의 개발도상국 60%가 부채 위기에 빠져 있거나 그럴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최근 “향후 5년 안에 디폴트를 낼 확률이 50% 이상인 국가가 12개국으로 18개월 전의 3개국에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포함해 파키스탄과 케냐 등이 디폴트 위험



국으로 꼽혔다. 더 나아가 블룸버그통신은 우크라이나가 1년 안에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50%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다.

브래드 세처 CFR 선임연구원은 “신흥시장에서 채무 구조조정이 필요한 국가 부채가 2000억 달러(약 260조 원)에 달한다”며 “2012~2020년 비정상적으로 많은 국가가 시장, 특히 중국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디폴트 상태이거나 그 위험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뒤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내몰렸을 것으로 WB는 추정했다. NYT는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디폴트가 일어 나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의 차입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아서 연쇄 디폴트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이 부채가 있는 이들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 세계 경제성장세가 더 약해지고 광범위한 기아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게 된다.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는 “취약국의 채무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낫게 보인다”며 “개도국이 짊어진 부담이 계속 커진다면 이

민 증가와 시장 상실 등 선진국 경제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최대 채권국 중 하나가 된 중국이 개도국과 신흥국 부채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중국은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5000억 달러 이상을 빌려줬지만, 상대적으로 부채 조정에는 미온적이어서 개도국들을 ‘부채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소벨은 “중국은 자신의 대출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부채 조정에 구물거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 경기·인천 거래량 최저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거래절벽 현상과 아파트값 내림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규제, 거래세 완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1월 경기·인천 아파트 거래량은 22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6250건) 대비 64.0% 줄어든 규모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경기·인천 아파트 거래는 6월 5317건을 기록한 뒤 7월 3808건, 8월 3834건, 9월 3507건, 10월 3674건으로 점차 쪼그라들고 있다. 계약 후 30일 이내인 신고 기한이 남아 있지만,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잇단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

## 아파트 거래 전년比 64% 감소 거래세 완화 등 추가 대책 필요

준으로 낮아질수록 매수세가 약한 상황을 나타내는데 수도권 아파트 수급지수는 70선이 무너졌다. 경기는 72.0에서 70.8로 떨어졌고, 인천은 70.8에서 69.5로 하락했다.

매수심리 약화는 규제 완화에도 집값에 여전히 거품이 있다는 수요자들의 의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A공인 대표는 “전용면적 84㎡형 기준으로 지난해 4억~5억 원 하던 매물들이 올해 9월 들어 3억8000만 원까지 떨어졌다”며 “아직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고 이자 부담이 커서 좀처럼 매수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확대 허용 등으로 실수요자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규제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여전히만큼 대출 규제 정상화가 실제 대출 확대에 이어질 것이라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 거래세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 평행선 달리는 與野... 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비공개 ‘소소위’서 예산안 논의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 우려도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 국회 법정처리 시한(2일)이 넘어갔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일이 지난날 30일로 종료되면서 비공개 회의인 ‘소(小)소위’에서 진행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8,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

태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강대강’ 대치 속에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 9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예산안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 사퇴론을 추진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준예산은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다. 한 여론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는 늘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늦게 진행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

소소위로 넘어간 2023년도 예산안의 앞길도 문제다. 소소위는 국회 예결위장과 여야 간사 3명 등만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로,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만드는 협의체다. 철저히 비밀로 심사가 진행되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밀실심사’로 불린다. 특히 소소위는 일부 의원들이 SOC 건설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쪽지예산’을 통과시키

는 창구로 비판받아 왔다. 지난해만 해도 2022년 예산에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 사업이 증액됐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8년 낸 ‘국회 예산안 자동부제도의 운영현황’ 보고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 지연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에 일조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정 기한의 준수는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에 기반한 국회 운영의 원리와 예산안 심사를 다른 쟁점법안의 처리와 연계시키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안희 기자 nancho0907@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디폴트옵션의 시대, 든든한 퇴직연금 공유해 드릴까요?



디폴트옵션의 시대에는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은행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퇴직연금,  
든든하게 KB국민은행과 함께하세요

**디폴트옵션의 시대에도  
역시 KB국민은행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퇴직연금 DC/IRP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상의필 제2022-3778(2022.11.29) 유효기한 (2023-11-28)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은행**

# 정부 “운송복귀 거부자 전원 예외없이 사법 처리”

## 화물연대 강력 행정처분 예고

운송 복귀자 향한 폭행·협박 등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 묻겠다”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망 구축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유도하는 차주는 예외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행위에도 사법 처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



쏟아진 주유소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기름이 품질된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일 14시 기준, 전국에서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총 74곳이다. 4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 휴업 안내문이 걸려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큰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는 중이다. 이에 강 대강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오전 10시 기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일요일의 194%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파업 참가 규모도 지난주 4300명의 67% 수준인 2900명까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도 정부의 강 대

강 조치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지하철노조의 파업 등에 관해 부정적인 응답이 58%, 긍정적인 응답이 34%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경총 “국민 5명 중 4명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재고해야”

### 80% “불법쟁의 손배 면책 반대” 사용자 개념 확대 반대 의견도

‘노란봉투법’ 제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국민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19.9%에 그쳤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이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을 ‘파업조정법’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손배폭탄 방지법’으로 맞서고 있다.

또 면책뿐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 즉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에 따르면 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 즉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이 응답 결과에 대해 “권리분쟁 사항과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다

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경총은 10월 19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에 대해 “대화과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강행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우 기자 burning@

#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월호 발매



## COVER STORY 커져가는 노년 위기, 노후 빈곤

- PART 1. 27만 원 노인 알바가 소중한 이유
- PART 2. 부동산, 족쇄일까 열쇠일까
- PART 3. “가난하고 외로운 당신 하루노인”
- PART 4. 빈곤 부르는 노후 복병
- PART 5. 폐지 찾는 이유 “가난 때문 아냐”
- PART 6. 상실의 시대, 마음 치유하려면

## BRAVO INTERVIEW



배우 유정 나이 들수록 메마르지 않아



고영주 쇼콜라티에 고장 난 심신에도, 아무튼 초콜릿!



농지, 지금 양도해도 될까?

시니어가 알아야 할 척추 건강법

## 브라보 여행 담담하고 덩덤하게 영주가 주는 위로



## 감성 예술! 미술관 여기 푸른 공원으로 녹아든 미술관을 보러거든



정년 없는 기술직 도배기능사

Issue

연륜진홍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제4부

꿈빛 밝은육아로 가는 길

독박 황혼육아 이제 그만

# 美에 추가투자... LG엔솔, 2위 굳히기

제너럴모터스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테네시주에 3600억 규모 투자 단행

SK온, 현대차·美 전기차 공급협력 삼성SDI, 인디애나주에 3.3兆 투자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시장에 36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면서 2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LG엔솔은 북미시장에서 테슬라 납품으로 점유율 과반 가까이 차지한 일본의 파나소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LG엔솔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미국 테네시주에 2억7500만 달러(약 359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는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하기로 한 리튬배터리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얼티엄셀즈는 스프링힐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 달러(약 3조 원)를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LG엔솔에 따르면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애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한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 점유율 2위와 4위, 5위를 차지했다. 우리 배터리 기업은 미국 IRA(일명 인플레이션 방지법) 대응을 위해 북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점유율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된 북미 전기차(EV, PHEV, HEV)의 업체별 배터리 점유율 1위는 일본 파나소닉이다. 파나소닉의 배터리 사용량이 27.1GWh로 시장점유율 4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파나소닉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7.9%로 4위에 그쳤다. 북미에서 시장 점유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테슬라의 높은 판매량 때문으로 풀이된다.

LG엔솔은 북미에서 배터리 사용량 10.1GWh(시장점유율 18%)로 2위다. 같은 기간 LG엔솔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위다. 북미 시장 점유율 3위는 글로벌 점유율 1위인 중국의 CATL이다. CATL의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배 넘게(431%) 급증했다. 시장 점유율도 4%에서 14%로 급증했다.

북미 시장 점유율 4위와 5위는 한국기업인 SK온(10%)과 삼성SDI(8%)가 차지했다. SK온은 배터리 사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넘게(646%) 급증하면서 시장점유율이 7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삼성SDI의 배터리 사용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282%) 급증했다.

이 조사업체는 조사기간 전기차의 배터리 사용량이 56.4기가와트시(GWh)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배터리 3사 2030년 북미 시장 점유율 전망지도 IRA 발표 전 42%에서 발표 후 68%로 상향 조정했다. LG엔솔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북미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SK온은 현대차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금액은 2조5000억 원으로 2026년 전기차 30만대와 배터리 20GW 규모 합작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은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해 현재 가동 중이다.

삼성SDI도 지난 5월 스텔란티스와 함께 약 3조3000억 원을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었다. 박기영 기자 psy@



**‘실내 마스크’ 벗을까**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책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주요 도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동향	
베이징	대규모 상업시설 잇따라 영업 재개
광저우	많은 지역서 봉쇄와 외식 금지 해제
충칭	모든 주민 대상 PCR 검사 중지
청두	모든 주민 대상 PCR 검사 중지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주민 이동이나 교통수단 이용 제한 완화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 시위 불길에 꼬리 내린 시진핑 中 '제로 코로나' 출구 찾는다

코로나 방역 '단계적 완화' 유력 베이징·광저우 등 주요도시 풀려 '사망자 200만명 전망' 최대 난제

중국 정부가 전례 없는 정책 향의 시위에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 요구로 이어지자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단계적 완화다. 집권 안정을 위해 국민 반발을 잠재워야 하지만, 그간 제로 코로나에 집착해온 지도부의 위엄과 신망을 잃지 않으려면 정책을 한 번에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베이징, 광저우, 텐진 등 주요 도시가 제로 코로나 규제를 완화했다. 광저우의 경우 외식 금지 규정이 풀리면서 1일부터 음식점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내야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규정도 사라져 도시 내 대부분의 검사소도 철거됐다.

베이징은 5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PCR 검사 결과지를 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3일부터 대형 쇼핑몰 영업도 재개했다. 다만 식당 내 식사는 불가하고 이용객들은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음

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베이징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 격리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차오양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자가 격리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텐진도 2일부터 PCR 검사 결과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칭은 고위험 구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외출을 허용하고, PCR 결과 없이도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내 저명 경제학자들도 정책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오양 베이징대 교수와 황이핑 전 인민은행 고문 등 6명은 경제 성장을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 재개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1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과 회담에서 3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최근 시위 이유로 꼽았다"며 "그가 정책 재검토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완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을 완전히 폐기할 경우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에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노년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유효성이 낮은 중국산 백신에 의존하고 있다. 60세 이상 중국 노인 중 백신을 두 번 접종한 사람은 약 86%에 그쳤으며 80세 이상은 66%로 더 낮다. 정영인 기자 oin@

## 가공식품 가격, 73개 중 71개 '무차별 상승'

1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 9.4% ↑ 식용유 43%...14개월 연속 상승 우웃값 올라 '밀크플레이션' 우려 빵·아이스크림도 일제히 오를 듯

가공식품 품목 73개 중 71개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원유(原油) 가격 인상에 따라 우유가 재료인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13.71(2020=100)로 1년 전(103.94)보다 9.4%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10.2%)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던 전월(9.5%)보다는 0.1%포인트(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

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 총 73개 품목 중 젓갈(-0.2%)과 유산균(-3.5%)을 제외한 71개 품목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물류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고환율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업계가 가격을 인상한 영향이다.

품목 중에서는 식용유가 1년 전보다 43.3%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식용유 가격은 2021년 10월 13.3% 상승한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10%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식용유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식용유의 원재료인 대두, 대두유 등의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업계에서 가격을 인상해서다.

밀가루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안해진 공급에 최근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1년 전보다 36.1% 상승했다. 부침가루(28.5%)와 시리얼(29.1%), 국수(28.1%), 라면

(12.6%) 등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최근 업계 인상이 반영돼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최근 우유 원유 가격 인상의 여파로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된 상황이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10월 16일부터 원유 기본가격을 리터(l)당 49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도 지난달 17일부터 흰우유 가격을 약 6.6%~9.6% 인상했다.

서울우유는 l당 180원 올린 2890원, 매일유업은 900ml를 250원 올려 2860원, 남양유업은 230원 올려 2880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유를 재료로 하는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1월 기준 우유가 사용되는 치즈 가격은 1년 전보다 35.9% 급등했고, 빵(15.8%), 파이(11.8%), 아이스크림(8.3%) 등의 가격 상승 폭도 컸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 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자제 압박

"안정 우선... 가계부채 충격 우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사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단위로 살펴보고 있다. 사실상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말라는 경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개별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릴 순 있겠지만 어떤 요인 때문에 올렸는지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에게 대출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기준금리가 오를 것에 비해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미 선반영됐음에도 추가로 더 오르는 게 맞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수신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면서 대출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

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예금금리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 추이도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며, 과도한 개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은 매우 섬세한 산업이다. 특히 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래저래라 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사상 최대(올해 3분기 기준 187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 부채에 충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문선영 기자 moon@

# 총선 의식했나... 정부·여당 “내년 남북대화 가능성”

### 尹 30%대 지지율 개선 목말라 김정은 신년 대남 메시지 주목 과거에도 최고 도발 이후 대화 與 “도발 수위 못높여 기류 변화”

정부·여당에서 내년부터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뒤 대화에 나섰던 과거 사례, 또 7차 핵실험 감행 시 외통수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근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예고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년사를 같음하는 대

남·대미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에선 대화 기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여러 발의 미사일 도발을 한 상황에서 더 도발 수위를 높일 방법은 없다”며 “7차 핵실험은 핵무기 보유로 여겨지기 때문에 협상 판 자체가 깨져 감행하지 않을 것이고, 2017년 긴장을 높인 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한 것처럼 기류가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긴장을 최

고조로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김 위원장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직접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2017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ICBM 발사를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의미로 삼았다면, 2018년처럼 내년에도 남북 대화 기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기대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2018년에 남북회담을 한 것처럼 최고조로 올린 도발 수위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전제가 없는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례적인 빈도수의 미사일·방사포 및 ICBM 발사, 7차 핵실험 압박 전망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의 경우 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사활을 걸었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는 전제로 협력한다는 내용인데, 김 위원장이 ICBM 발사 현장에 자신의 딸까지 데려오며 핵을 강조한 상황에서 어려운 이야기”라며 “정부가 미국, 일본과 공조해

압박에 무게를 두는 상태에서는 군비경쟁만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극적인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물론 역대 대통령들이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을 이뤘던 건 남북회담을 개최한 시기라 서다. 30% 전후를 오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총선에서 고전할 공간이 커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기가 필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화 이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지율이 가장 극적으로 확실히 오르는 이벤트는 남북 회담”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 野 “블라인드 채용 지원”...정부는 물론 기업도 48% 반대



관심法

### 세계 혜택안 법제화 ‘미지수’ 尹 “우수연구자 확보 어려움” 使 “직무 전문성 판단 역부족”

민간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채용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주저하는 데는 ‘돈’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 법제화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

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사 지원서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심사 비용의 10분의 1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과제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외모·출신지·가족관계·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인재를 채용하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도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지난 8월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블라

인드 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70%에 달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인사담당자 중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은 51.6%로 반대(48.4%)보다 약간 많았다. 법제화를 위한 추진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민간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지 않는 건 단순히 비용 문제 때문이 아니다. 조사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건 ‘직무 전문성과 경쟁력을 판단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건 ‘일관되지 않은 채용 기준’이었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2019년 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중국 국적자를 연구

원으로 선발한 것이다.

정부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자문회의 1차 전원회의의 두 발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우수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연구기관들은 채용 지원자의 학력, 지도교수, 논문, 참여 과제 등이 전문성을 판단한 핵심 요인이지만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이를 파악할 수 없어 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정치권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전 정부의 업적인 만큼 윤 정부가 점진적으로 폐지해나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이재명 “IRA 개정을” 한국계 美 의원 서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한국계 미국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차별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한국계 의원님들께 IRA 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이다.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시아 평화에 굳건한 역할을 해 온 7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고도화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관계의 가교 구실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임된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리랜드, 앤디 김 등 네 명의 하원의원에게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 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FTA와 WTO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질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신뢰가 있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면 IRA 법안을 둘러싼 위기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며 “국익을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날 IRA 협의를 위한 정부·국회 대표단도 워싱턴 D.C.로 떠났다. 대표단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합류했다. 국회 대표단은 9일까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과 만나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고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조경태 “종부세 즉각 폐지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4일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며 당권도전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 논리로 도입된 세금,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작년보다 (납부 대상자가) 29만명이나 늘어났고,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3.7배 늘었고 거둬들인 세금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는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제정안을 내놨지만, 거대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들만 고통”이라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 분들이 투기꾼이고 고액 자산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2005년 종부세 도입 때 빗자랑이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됐고, OECD에 우리와 같은 종부세를 운영 하는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베트남 주석尹 정부 첫 국민방한 우유엔 쉐언 폭(가운데) 베트남 주석이 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영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폭 주석은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윤 정부 출범 후 첫 국민방한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전대 룰’ 이르면 이달 확정

### 전대 ‘2말3초’ 개최 기정사실화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이르면 올해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 당 지도부와 연쇄 만찬 회동 이후 당이 급격히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하는 양상이다. 쟁점이던 일정, 룰 변경 문제도 서서히 윤곽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4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지도부 내부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전당대회 개최 준비를 시작해 임기(3월 12일) 내에 차기당 대표 선출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로드맵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연쇄 관저 회동 당시 전당

대회 문제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만으로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2월 말·3월 초’로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라는 게 당내 대체적 평가다.

지도부는 룰 세팅 작업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 변경과 관련,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9대 1’ ‘8대 2’ ‘7대 3’ (현행) 등 3가지 선택지로 나눠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당원 여론조사 의 경우, 당원 투표 비중 대폭 확대를 주장하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이를 반대하는 비주류 사이 마찰을 줄인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원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덜’ 받

영되길 원한다고 답하겠다”라며 “9대1이 ‘윤심’ (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국회가 끝나는 즈음에 맞춰 여론조사 등 물밑 작업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일정 확정과 동시에 룰 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3월 초를 전당대회 개최 마지노선으로 두고 역산하면 여유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관저 회동을 계기로 전당대회 준비가 속도를 내면서, 당내에서는 재차 윤핵관들에게로 당권 균형추가 기울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해

# 공부방이란 희망을 선물합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부방 리모델링 지원 사업 수혜 가정 1호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통령실

## 하루 버려지는 옷 255톤 '생산자 책임 재활용' 검토

형광등·타이어·캔... 이미 적용 EU, 패스트패션 강력 규제 준비

정부가 의류·섬유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적용을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섬유제품에 대한 국제적 규제 흐름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하루 버려지는 옷의 양이 최소 225톤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안서엔 "폐의류와 폐섬유 등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라는 요청이 담겼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물리는 제도다.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대상은 형광등·타이어 등 8개 제품군과 종이팩·금속 캔·유리병·합성수지 포장재 등 4개 포장재 군이다.

2018년에도 의류와 섬유에 제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당시 정부는 이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위해성이 있는 것을 관리하는 제도인데, 폐의류는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의류에 대해서는 제도로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편익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 자율적으로 처리를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입장을 바꿔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국제 흐름의 변화를 짚을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패스트패션'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준의 규제를 준비 중이다. EU 집행위원회가 3월 30일 발표한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섬유 전략'에는 2030년까지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섬유제품은 '내구성 있고 수선과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상당 부분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이 전략을 발표하면서 '섬유의 소비'가 식량, 주거, 이동에 이어 환경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4번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연에 유출되는 미세플라스틱 35%가 섬유제품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버려지는 옷의 양을 고려해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폐의류 발생량은 약 8만2422톤에 달한다. 하루에만 버려지는 옷이 225톤이라는 의미다. 폐섬유 발생량 역시 2만7083톤 수준이다. 문제는 이 발생량이 다른 쓰레기와 분리 배출돼 당국이 파악한 양이라는 점이다. 다른 쓰레기와 섞여 버려진 양까지 따지면 폐의류·폐섬유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작년 생활(가정)폐기물 가운데 종량제봉투 등에 담겨 혼합 배출된 폐섬유는 37만664톤으로 추정됐다. 이중 재활용된 양은 2만1433톤으로 5.8%에 불과했다. 사업장에서 버려진 섬유는 6만6099톤이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정부 "석유화학 손배소송 검토" 화물연대 "국제노동기구 제소"

### 총파업 강대강 대치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대강 조치를 이어나갔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 석유화학까지 업무개시명령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다. 화물연대 역시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입 의사를 밝히며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정유와 철강 등 주요 분야의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와 철강까지 업무개시명령이 이어진다면,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화물노조의 총파업을 '폭력과 불법행위'라고 언급한 만큼, 대화의 가능성도 줄었다.

### 추가 업무개시명령 지시 이어 석화학에 손배소송 동참 요구 총파업에 사실상 전면전 예고

### 화물연대 "국제노동기준 위반" ILO 긴급개입절차 개시 '변수'

화물연대 역시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날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그 책임을 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정유와 철강 외에도 정부는 석유화학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가 검토 중인 손해배상소송에 석유화학 협회의 동참을 요구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은 생산이 잘못되면 소송까지 검토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업무개시명령이나 군 컨테이너 투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ILO의 개입이 변수로 떠올랐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ILO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만약 화물연대의 주장대로 ILO가 긴급개입을 한다면 화물연대에는 힘이 실릴 수 있다. 한국이 ILO 회원국이라서 ILO 협약을 어겼다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위법 사항,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습 시도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를 동원한 탄압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soon@

## 딸기 본격 출하... "1kg당 가격 작년보다 저렴할 것"

딸기 출하가 본격화하고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이딸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월 딸기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100g 소매가격은 지난해 2200원보다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까지 딸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비쌌다. 생육기 고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식(아주심기·모종을 밭에다 제대로 심

는 일) 시기를 늦추면서 8월 정식 면적이 지난해보다 17% 줄었고, 이 때문에 11월 딸기 시장 반입량은 1년 전과 비교해 28%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 들어 딸기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다. 정식을 늦췄던 농가에서 출하를 시작했고, 병·해충 피해도 작아 지난해보다 단수가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달 초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 생산량 증가세는 다소 완만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김중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유가 상승으로 겨울철 시설채소 전반에 걸쳐 경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산작물 생육 기술지도를 늘려 겨울철 시설채소 공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 "농촌 미세먼지 줄이자"... 노후 트랙터 조기 폐차 지원

### 대당 700만원 '예타' 통과

정부가 농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트랙터와 콤팩트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 사업은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노후 트랙터와 콤팩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



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4월부터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노후 농기계는 동급의 화물트럭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이 3배 이상 많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 트랙터 2만1504대, 콤팩트 약 4096대 등을 폐차하는데 3년간 총 1659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트랙터 약 700만 원, 콤팩트는 450만 원으로 예상된다.

문태섭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시범사업 미비사항 등을 고려해 노후농기계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 가맹점주 46% "물품 강매 등 불공정 경험"

### 경기 침체로 작년보다 7%p ↑ 강매 거부한 84% "불이익 받아"

가맹점주 절반 가까이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를 비롯한 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구입강제를 강요받고, 구입강제 요구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주도 적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9일 편의점, 치킨, 한식, 커피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46.3%로 전년(39.7%)보다 6.6%포인트(p) 늘었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2.5%)' 등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의 계약유지기간이 짧을수록(2년 미만) 매출액 등 허위 정보제공 행위 경험이 많은 반면, 계약유지기간이 길수록(5년 이상) 광고비 등 비용 부담 전가 행

위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코로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는 등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로 전년(86.6%)보다 2.2%p 감소했다.

올해 조사 항목으로 추가된 물품 구입강제, 필수품목 현황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응답자 중 가맹본부로부터 물품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16.0%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30.0%) 업종에서 구입강제 강요 경험이 타 업종 대비 높았으며 특히 원부자재에 대한 구입강제가 많았다. 구입강제를 강요 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전체의 16%) 중 83.9%는 가맹본부로부터 구입강제 요구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이고,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은 78.5%로 나타났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p 증가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제로 코로나’에 열 받았나... 애플, 脫중국 본격화

협력사들에 제조 시설 이전 요청  
정저우공장, 12월 가동률 30~40%

인도 비중 최대 45%로 확대 전망  
베트남, 非아이폰 주력 생산할 듯  
인력 부족·규제 불안 극복은 숙제

애플이 자사 공급망에서의 ‘탈(脫) 중국’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최근 협력업체들에 중국 밖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최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

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렉스셰어와 윈테크 등 중국에 기반을 둔 협력사들도 애플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방침에 협력할 의지를 보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애플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말 세계 최대 규모 아이폰 조립지가 있어 ‘아이폰 시티’로 불리는 중국 정저우에서는 현지 폭스콘 공장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저우 사태로 아이폰 출고가 지연되면서 애플이 연말 소량 대목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플 분석 전문가인 귀망치 TF증권 애널리스트에 따라

면 지난달 정저우 공장은 종전의 약 20% 정도만 가동됐으며 12월에는 30~40% 정도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폭스콘은 정저우 공장에서만 3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정저우 공장은 아이폰14 프로와 아이폰14 프로 맥스 등 아이폰 프로 라인업의 85% 가까이 생산할 정도로 애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전에도 애플 내부에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심심치 않게 나왔었지만, 회사는 지난 수년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다른 신흥국에 비해 높은 정치적 안정, 문맹률이 낮은 노동자층, 거대한 내수 등 장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근 1년 새 ‘제조 허브’로서 중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생산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했던 애플의 불안감도 커지게 됐다. WSJ는 지적했다.

중국의 대체 지역으로는 인도와 베트남이 꼽힌다. 귀망치는 현재 한 자릿수인 인도의 아이폰 생산 비중이 장기적으로 40~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에서는 에어팟과 애플워치, 맥북과 같은 아이폰 이외의 다른 하드웨어 제품 생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애플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미·중 비즈니스협회가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약 25%가 최근 1년 새 공급망 일부를 중국 밖으로 옮겼다고 응답했다.

다만 수십 년간 이어왔던 중국과의 밀착 관계를 끊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체지인 인도와 베트남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인력이 중국에 비해 부족하다. 베트남 인구는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억 명 정도다. 폭스콘 임원 출신인 한 기업자문가는 “베트남에서는 6만 명 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지만, 정저우처럼 수십만 명 규모의 공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인도의 경우 인구 규모가 중국과 비슷하지만, 규제 안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 주(州)마다 정책이 다르고 생산 허가를 내주기 전 기업들에 부과하는 의무가 많기 때문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美, 33년 만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공개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공군 격납고에서 차세대 전략폭격기인 ‘B-21’을 공개하고 있다. 이 폭격기는 1989년 세상에 처음 모습을 보인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의 뒤를 잇는 기종으로 북한과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1조 달러 규모 핵 억제력 개편 작업의 첫 번째 작품이다. 2026년이나 2027년 배치가 예상되며 비용은 대당 약 7억 달러(약 9100억 원)로 추정된다. 팜데일(미국)/로이터연합뉴스

## 뱅크먼-프리드 ‘알라메다 특혜’ 인정 살 길 찾는 FTX, 구조조정 작업 시작

“타 고객보다 차입 한도 컸다”  
‘우량사’ 레저엑스 매각 돌입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설립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인 샘 뱅크먼-프리드(사진)가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가 특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3일(현지시간) 뱅크먼-프리드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알라메다가 다른 고객들보다 더 큰 차입 한도를 가졌냐’는 질문에 “사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알라메다는 FTX 유동성 위기의 중심에 있는 회사다. FTX는 회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던 알라메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예치금을 활용했다가 유동성 문제를 일으켰다. 뱅크먼-프리드는 그런 알라메다에 FTX가 특혜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뱅크먼-프리드는 “FTX가 처음 시작됐을 때 알라메다의 차입 한도가 상당히 컸다”며 “다른 금융사들이 FTX에 관심을 보이기 전 주요 유동성 공급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TX가 알라메다에 크게 노출된 상태에서 FTX의 대차대조표가 약세를 보이면서 양사를 집어삼킨 위기가 시작됐다.

뱅크먼-프리드는 “다른 회사들과 같은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도 말했다.

구조조정 전문가인 존 J. 레이 3세 신임 FTX CEO도 FTX와 알라메다가 밀접한 관계인 점을 지적했다. 레이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전 경영진이 FTX와 알라메다를 분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FTX가 자동 자산 청산에서 알라메다를 아무도 모르게 제외하기도 했다”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알라메다가 거래소의 다른 거래자들과 동일한 청산 프로토콜을 적용받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없다”며 “거래소 계좌별 대우가 유동적이었다”고 변명했다.

한편 FTX는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FTX는 우량사업을 매각해 채권자 변제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TX 계열사 중 그나마 우량 기업으로 꼽히는 레저엑스의 매각 작업이 시작됐다.

정영민 기자 oin@

## “유가 상한제 우회”... ‘그림자 선단’ 꾸린 러

서방 “배럴당 60달러 상한”에  
외국 유조선 100척 이상 확보  
“안전 위험 감수하면 구매 가능”  
곳곳서 제재 실효성 의문 제기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러시아가 상한제를 포함해 원유와 관련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대규모로 ‘그림자’ 선단을 꾸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해운중개업체 브레이머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외국 유조선 100척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리스태드도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원유 금수 조치를 받고 있어 서구권 정유사, 보험업체와 전혀 거래하지 않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올해 유조선을 직접 구매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103척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림자 선단의 구축과 거래 방법은

여러 가지다. 2020년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깃발을 바꾸거나, 송신기를 끈 후 바다 한가운데에서 구매자와 접선해 원유를 거래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 선박 이름을 바꾸고 문서를 위조해 소유주를 은폐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그림자 선단의 거래에 익숙한 바이어들은 보험 없이도 원유를 운송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그림자 선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해운업체가 사실상 서방이 중심이 된 ‘주류’ 선단과 대러시아 제재를 따르지 않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중심이 된 ‘그림자 선단’으로 양분됐다고 지적했다.

이 영향으로 노후 유조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다. 영국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15년 된 200만 배럴 원유 선척이 가능한 유조선의 평균 가격은 최근 6개월 새에 37% 급등한 5200만 달러(약 677억 원)를 기록했다. 심지어 지난해 1700만 달러로 평가됐던 그리스의 22년 된 선박은 올해 두 배에 달하는

3200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2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을 배럴당 60달러에 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장 5일부터 배럴당 60달러 이상에 거래된 러시아산 원유는 해상 보험과 운송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호주도 동참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그간 주로 해외 유조선을 통해 원유 운송을 해왔다는 점에서 상한제는 타격이 큰 조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러시아가 주류 해운사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하는 ‘그림자 선단’ 활용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제재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생기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금수 조치가 내려진 이란과 베네수엘라와 달리 러시아산 원유는 새로운 규제가 발효되더라도 여전히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상한선을 넘겨도 구매자가 보험과 같은 안전망이 없는 상태를 감수하면 여전히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美 미디어 업계도 정리하고 ‘칼바람’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에 이어 미디어 업계에서도 정리해고가 확산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광고 둔화, 경기침체 전망,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 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진 탓이다.

지난 한 주간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를 포함해 언론사와 TV 방송국, 영화와 방송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해고한 직원 수가 수백 명에 달했다. WBD 산하 CNN방송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직원들을 해고했지만,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8월 400명 직원을 해고했던 미국 최대 신문사 그룹인 가넷도 추가로 200명 이상을 해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달 30일 일요일판 발행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1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

다고 알렸다. 인기 드라마 ‘워킹데드’로 잘 알려진 AMC네트웍스는 지난달 29일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20%를 해고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기업은 여러 약재가 겹친 상황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많은 기업이 지난 몇 년간 스트리밍 서비스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그 여파가 지금 재정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TV 방송 시청자 감소, 경기 불황, 광고 지출 둔화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극대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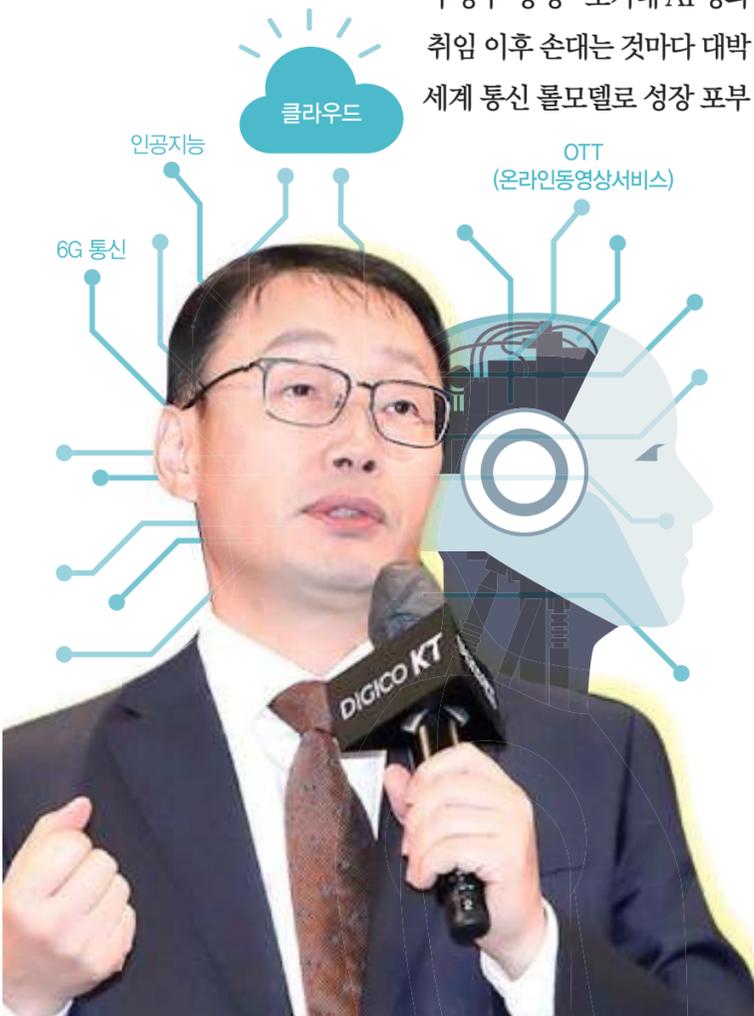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도 치열해진 경쟁에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넷플릭스는 올해 초 4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 월트디즈니도 올해 3분기 디즈니플러스(+)가 14억7000만 달러(약 2조 원)의 적자를 보면서 채용 동결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정영민 기자 oin@

# '34년 KT맨' 구현모... "디지코가 KT의 미래 바꿀 것"

“글로벌 플랫폼 시장 선도”... 대표 연임 출사표

‘우영우’ 흥행·초거대 AI 성과  
취임 이후 손대는 것마다 대박  
세계 통신 롤모델로 성장 포부



“구현모 대표이사가 연임 의사를 표명하였고, KT 이사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임 우선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의 2022년 3분기 실적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지난달 8일 오후 2시. 갑작스럽게 구현모(사진) 대표의 연임 도전 소식이 전해졌다. KT를 단순한 통신회사가 아닌, 전 세계 통신 회사가 따라야 할 롤모델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다. 그는 스스로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통신 시장에서의 의미있는 마케팅 경쟁 대신 AI·빅데이터·클라우드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변호사 우영우’ 탄생 핵심 인물 = 구 대표는 올해 최고의 드라마로 꼽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있게 한 최고 책임자다. 그는 그룹 내 미디어 콘텐츠 역량을 결집해 투자 및 기획, 제작, 유통까지 아우르는 콘텐츠 전문 기업 ‘KT 스튜디오지니’를 지난해 설립했다. KT 스튜디오지니로 2023년 말까지 원천 IP 1000여 개 이상, 드라마 IP 100개 이상의 콘텐츠 라이선스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성과는 올해 바로 나타났다. ENA채널을 통해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마지막 회 시청률 17.5%(비지상파 유료가구, 닐스코리아 집계)를 기록하며 유종의미를 거뒀다. 콘텐츠 확장에 힘썼던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콘텐츠 분야의 행보는 ‘시즌’과 ‘티빙’의 합병으로 이어졌다. 그는 CJ ENM과 함께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내 온라인 동

영사 서비스(OTT) 경쟁력 강화와 K-콘텐츠 성장 가속화를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 양사는 지난 1일 합병을 완료하고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전환 속도전 = 구 대표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2조60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이끌며 디지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 대표는 미래성장을 위한 DX 사업협력을 위해 지난 1월 신한은행과 4375억 원의 지분을 상호 취득하는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2020년 6월에는 현대모비스에 5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0% 확보하며 미래성장에 나서고 있다.

9월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KT와 현대차그룹은 KT 자사주약 7500억원(7.7%)을 현대차 약 4456억원(1.04%), 현대모비스 약 3003억원(1.46%) 규모의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 KT와 현대차그룹은 미래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협력하고,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6G 통신 규격을 공동 개발해 차세대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지난 7월 국내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에 300억 원 규모의 전략 투자를 단행했다. 리벨리온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우수한 개발 인력과 수준 높은 주문형 반도체 설계 경쟁력 등 차별화된 입지를 다져온 회사다. 2021년 AI인

프라 솔루션 전문 기업인 ‘모레’에 이은 KT의 두 번째 AI인프라 분야 전략 투자 스타트업이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는 지난해 가입자와 여신액, 수신액이 3배가량 증가하며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BC카드도 작년 마에이더 사업 허가를 받고, 디지털 금융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신사업 생태계 조성 위한 ‘AI원팀’ = 구 대표는 취임 당시부터 ‘단단하고 당당한 KT’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2020년 2월 ‘AI원팀’을 결성하며 AI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 AI원팀은 인공지능 분야 공동 연구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대표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는 협력 단체다. AI원팀 결성 이후 LG전자, 동원그룹, 한국투자 등이 추가 합류하는 등 AI원팀의 외연을 넓혀 나갔다.

KT는 AI원팀을 통해 지능형 로봇, 물류 플랫폼 혁신 솔루션 개발에 협업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AI원팀은 더욱 진화된 AI를 구현하기 위해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초거대 AI란 대용량의 연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처럼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를 의미한다.

구현모 대표는 AI원팀의 성과에 힘입어 2020년 11월에는 한컴 등 국내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기업들과 서울대, 포항공대 등이 참여하는 ‘클라우드원팀’도 결성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구현모 대표는 1987년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해 34년간 KT에서 외길을 걸어온 ‘KT맨’이다. KT 그룹의 주요 기업 인수합병(M&A)을 담당했으며 2008년 나스미디어, 2011년 BC카드의 인수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KT의 경영 전략실 출자관리팀장, 전략투자실 전략투자담당, 그룹전략 1담당, 코퍼레이트센터 경영전략담당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전략전문가로 성장했다. 2018년에는

## 12년 만의 내부 출신 CEO... BC카드 인수에 핵심 역할

구현모 KT대표는...

모바일, 유선전화, 기기인터넷, IPTV 등 KT의 대표적 고객 사업을 총괄하는 ‘커스터머&미디어 부문장’을 맡아 능력 입증했다.

2020년 3월 취임한 그는 2008년 이후

12년 만의 KT 내부 출신 최고경영자다. 통신기업 ‘텔코(TELECO)’에서 디지털 플랫폼기업 ‘디지코(DIGICO)’로의 변화를 선언해 B2B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직접 연임 의사를 밝히며 KT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디지코 선언 2년이 지난 현재 KT는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며, 구현모 대표의 디지코 전략이 주효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기존 통신 사업에서 안정적 퍼포먼스를 내고 있으며 미디어·콘텐츠, 클라우드·IDC, 기업메시징 등 B2B와 디지코 사업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성과도 가시화했다.

2019년 14조 원 수준의 서비스 매출(별도 기준)은 디지코 확장 이후 2020년에서 서비스 매출 15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9조671억 원으로 4분기 실적에 따라 역사상 가장 큰 서비스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디지코와 B2B 매출은 서비스 매출의 40%를 넘어섰다. 2020년 1월 7조 원이던 KT 시가총액은 8월 10조 원을 돌파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My First Choice

### 우리집 첫번째 로봇청소기

# DEEBOT Q9+

먼지통 자동비움

흡입 + 물걸레 동시기능

최적의 청소경로

장거리인식 dToF 센서

5,200Ah 대용량 배터리

3,000Pa 초강력 흡입력

에코백스 공식판매처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할 때입니다

# BUY KOREA BUY BOND

대한민국 국공채, 국내 우량채권을  
**KB증권**에서 투자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3595호(2022년10월 28일~2023년10월 27일)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환율 변동>,<신용등급 하락>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부도·파산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0,-순으로 구분됩니다

 KB증권

〈삼성전자 회장〉

〈SK그룹 회장〉

〈LG그룹 회장〉

# 이재용, CES 참석하나... 최태원·구광모 '데뷔' 가능성

## ‘CES 2023’ 누빌 재계총수는

세계 최대 IT·전자제품 융합전시회 ‘CES 2023’ 개막을 앞두고 재계 총수들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전자 회장 등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5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3에 삼성과 LG, 현대중공업 그룹 등의 주요 기업이 참석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SK그룹과 롯데그룹 일부 계열사도 전시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CES는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CES 2023이 전년 대비 40% 커진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총수들이 CES 2023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07년 1월 삼성 상무 시절 CES를 통해 공식 석상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 개막에

이재용 회장 취임 첫 참석 전망

글로벌 전장사업 넓히는 구광모 넷제로 의지 최태원 ‘참가 검토’

구자는 참관인 신분으로 참석

정기선 해양운송 방향 밝힐 듯

에 처음 데뷔한 후 2013년까지 7년 연속 CES를 챙겼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에 이 회장이 CES에 참석할 경우 지난 9월 회장직에 취임한 이후 첫 참석이 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CES 2023에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구 회장은 2019년 회장 취임 이후 아직 CES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 미국 등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글로벌 광복 행보를 보이는 만큼 이번 CES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구자는 LS그룹 회장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증언이다.

세계 안팎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CES 2023에 참석해 SK의 넷제로(탄소중립) 의지를 알리는 데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CES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참석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 참여한 적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장녀인 최윤정 SK 바이오팜 수석매니저와 동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3년 전시회 첫 참가하

는 SK바이오팜은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CES 디지털헬스부문 혁신상을 받았다.

취임 1주년을 앞둔 LS그룹 구자는 회장은 CES 2023을 통해 본격 글로벌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S그룹은 CES에 전시관을 마련하지 않지만, 구 회장과 주요 사장이 참관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특히 구 회장은 사내 미래 신사업 아이디어 공유의 장인 ‘LS 퓨처데이’의 우수 프로젝트 리더들과도 함께 전시를 참관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CES 2023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이 2년 연속 참여한다. 올해 CES에 데뷔했던 현대중공업그룹의 총수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내년에도 참석한다. 정 사장은 올해 CES에서 ‘퓨처 빌더’라는 비전을 설명한 데 이어 내년도 전시회에서 새로운 해양 운송 분야의 변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섭 기자 citizen@  
강태우 기자 burning@



## 특별한 디자이너들의 작품 담아낸 삼성전자 ‘더 프레임’

삼성전자는 키뮤스튜디오와 협업해 라이프스타일TV ‘더 프레임’을 통해 발달 장애를 지닌 디자이너 20여 명과 비장애인 디자이너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다. 사진은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TV ‘더 프레임’을 통해 선보이는 키뮤스튜디오의 다양한 작품 이미지.

삼성전자는 키뮤스튜디오와 협업해 라이프스타일TV ‘더 프레임’을 통해 발달 장애를 지닌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키뮤스튜디오는

## 승용차 판매 1위 노리는 기아 쏘렌토

기아의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쏘렌토가 레저용 차량(RV)으로 처음 올해 최다 판매 승용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써 ‘1위=세단’이라는 공식이 깨질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판매 실적에서 쏘렌토는 올해 11월까지 내수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6만1509대를 기록해 승용차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현대차 그랜저(5만8113

캐니발이 2위까지 올랐으며, 쏘렌토는 2016년 3위가 종전 최고 기록이다.

쏘렌토는 2002년 처음 출시됐다. 싼 타페와 함께 RV 붐을 일으켰으나 연간 판매 순위는 세단에 밀려 대부분 5위권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2014년 출시한 3세대 쏘렌토가 인기를 끌면서 3위에 올랐다. 이어 2020년 출시한 4세대 쏘렌토가 작년까지 4위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올해 2위인 그랜저와 격차



올 국내 6만1509대 판매  
뒤이어 그랜저·캐니발  
‘1위=세단’ 깨질지 주목

대) △기아 캐니발(5만1735대) △현대차 아반떼(5만508대) △기아 스포티지(4만9198대)가 이었다.

최근 SUV를 포함한 RV 차종 선호가 몇 년 사이 크게 늘었지만, 연간 판매 1위 승용차는 항상 세단이 차지해왔다. 현대차 쏘나타가 2000~2010년과 2014~2015년 13차례, 아반떼가 2011~2013년과 2016년 5차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은 현대차 그랜저가 1위를 독점해왔다.

RV차는 2000년 기아 카렌스, 2004년과 2018년 현대차 싼타페, 2021년

는 3396대로 쏘렌토 내수 판매량이 월 5000~6000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02년 출시 이후 쏘렌토의 국내 누적 판매량은 지난 6월 100만대를 넘어 11월까지 103만4000여 대다. 4세대부터 추가된 하이브리드(HEV) 모델은 올해 쏘렌토 판매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달 10만대를 넘어서며 국산 HEV 중 ‘최단기간 10만대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강태우 기자 burning@

## HMM “해운업 피크아웃? 정상화 수순일 뿐”

SCFI 1월 5109.6→1230.90

23주 연속 하락에 경기침체설

“재무완충력 충분히 버텨낼 것”

해운업계에선 HMM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다. HMM은 어려운 시기에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길렀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4일 분지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 프리미엄’으로 팬데믹 이후 폭등한 물동량이 점차 줄면서 해운 운임이 감소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피크아웃이 현실화했다며,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가 23주 연속 하락세로 이어지며 사실상 경기침체가 시작됐

다는 분석이 나온다.

컨테이너선의 운임 상황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달 25일 기준 1229.90을 기록했다. 이는 연초 대비 70% 이상 하락한 수치다.

2000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9월 말부터다. 올해 최고치를 달성한 1월 초(5109.60)와 비교하면 66.8% 급감한 셈이다. 이에 대해 HMM 측은 비정상적 정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HMM 관계자는 “운임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매출 역시 하락세인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비율을 가져가서 버텨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크아웃은 맞지만 아직 운임도 여유 있는 편이고 나쁜 상황은 아니란 것”

이라며 “좋은 때 좋은 것도 중요하데 힘들 때 버텨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HMM의 올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8조6867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7% 증가했다.

글로벌 해운업계가 고꾸라지는 가운데 HMM은 충분한 재무완충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 556.7%에 달했던 부채비율은 9월 말 36.9%로 하락했다. 현금성 자산은 15조8375억 원에 달했다.

한편 HMM은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지난달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육상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2년 치 연봉과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근속 10년 이상 직원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LG전자, 사회복지시설 ‘찾아가는 서비스’

세탁기 동파 예방 작업

LG전자가 겨울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LG전자는 최근 한 달간 300여 개의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에어컨, 세탁

기, 냉장고, 청소기, TV 등 LG가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달 9일까지 진행된다.

LG전자는 세탁기 동파 예방 작업에 나선다. 세탁기는 추운 겨울에 동결이나 동파가 자주 발생하는 제품 중 하나다. LG

전자는 세탁기 배수펌프에 잔수를 제거하고 수도꼭지를 보온재로 감싸는 등 동파 예방 작업과 세탁통에 스팀을 분사하는 통살균 서비스도 한다.

정연채 LG전자 고객가치혁신부문장 부사장은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복지시설에서 더 편리하게 LG가전을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 LG화학, 식물성 원료 ‘고기능성 플라스틱’ 출시

아시아 첫 ISCC PLUS 인증

LG화학은 아시아 최초로 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고기능성 플라스틱(ABS) 제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ABS는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이 우수한 플라스틱으로 LG화학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다.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거나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어 완구류뿐 아니라 가전, 자동차,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활용된다.

이번에 출시한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ISCC PLUS(글로벌 친환경 소재인증)를 획득했다. ABS 분야에서 ISCC PLUS 인증을 획득한 것은 아시아 최초라고 LG화학은 설명했다.

친환경 ABS는 북미 최대 장난감 제조업체 마텔사에 최근 처음으로 공급됐다. LG화학은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 관련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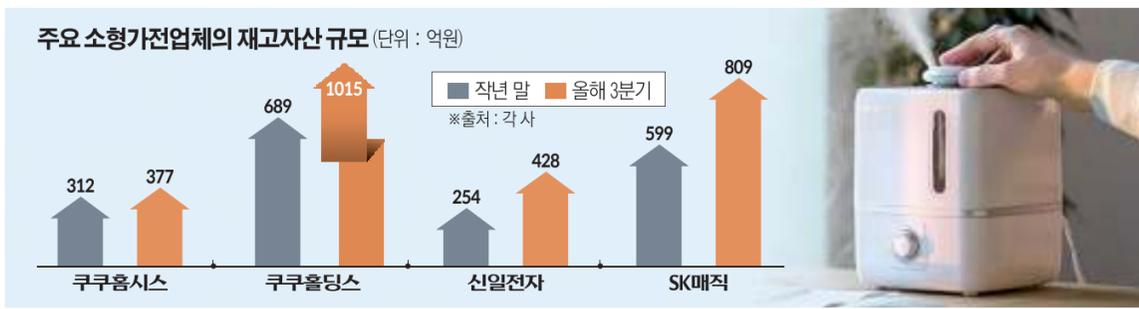
# 소비 부진에 창고 가득... 소형가전도 '재고' 비상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에 소형 가전업체들의 재고자산이 크게 늘고 있다. 재고 자산이 쌓이면 자금흐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며 재고 털어내기엔 안간힘을 쓰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쿠홈시스의 재고자산은 작년 말 312억 원에서 올해 3분기 377억 원으로 21% 가량 늘었다. 쿠쿠전자 자본 100%를 보유한 쿠쿠홀딩스의 재고자산도 작년 말 689억 원 수준에서 올해 3분기 기준 1015억 원으로 47% 증가했다.

이 기간 신일전자의 재고자산 규모도 254억 원에서 428억 원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SK매직도 작년 말 600억 원 수준이었던 재고자산이 올해 3분기 800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

재고자산은 기업들이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를 위해 제조하고 있는 제품, 판매 예정인 제품 등을 말한다. 제품과 반제품, 미작품, 원재료 등으로 세분화된다. 재고가 쌓인다는 건 그만큼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수요 부진에



**쿠쿠홈시스, 작년 대비 21% ↑  
신일가전은 428억... 70% 급증  
SK매직, 3분기 800억대로 늘어**

**경기침체에 소비·교체수요 감소  
원자재값 크게 올라 할인 어려워  
"공장 가동률 낮춰 생산량 조절"**

로 재고를 제때 털어내지 못하면 기업들은 자금흐름이 정체돼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감산 등 생산량 조절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공장 가동률 100%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재고 누적에 제품 가격에 대한 하락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올해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제조 원가가 크게 늘어 제품 가격을 할인하기도 쉽지 않다. 무턱대고 가격을 내렸다가 자칫 손실규모를 키

울 수 있다.

최근 재고 증가는 소형 가전업체를 비롯해 산업계 전체를 누르고 있다.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들의 재고는 지난해 말보다 36% 가까이 증가한 165조 원에 달하고 있다.

소형 가전업체들의 재고자산이 눈에 띄게 증가한 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에다 갈아타기 수요의 감소 탓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가전이나 가구는 코로나 확산 당시 수혜를 톡톡히 본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가전이나 가구 업계는 코로나가 확산했던 지난 2년간 보복소비

가 활발히 이뤄졌던 수혜업종으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었다"며 "그만큼 제품을 갈아타려는 교체 수요가 당분간 늘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형가전 업체는 공장 가동률 줄이는 등 재고 감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일전자 측은 "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재고자산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현재 제품 생산량을 조절, 재고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매직 관계자도 "다사 제품을 대행해 렌탈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화성공장 중앙물류센터에 별도 재고 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계속되는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앞으로 더 침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재고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은 올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또 엔데믹 전환으로 여행 등 억눌렸던 분야에 대한 소비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점은 가전업계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재고를 털어내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중소 10곳 중 4곳 "규제에 애로" 55%는 "신규 사업 진출 어려움"

### 중진공 '규제혁신 지원방안'

고용·노동 38.2%... 부담 최대  
업계 "불합리한 내용 폐지·완화  
과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일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44.6%는 규제에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에 가장 부담이 큰 규제는 고용·노동(38.2%), 자금조달(금융)(15.6%), 기술개발·사업화(11.6%), 환경(7.4%)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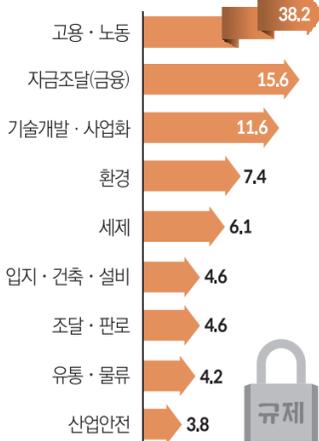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을 주로 꼽았다.

불합리한 행정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과의 괴리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지원요건과 기준도 규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피 규제자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의 요건과 기준 합리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1%)은 규제에 애로 신규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움의 주된 요인은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 가장 부담이 큰 규제 (단위: %)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 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중소기업 기중 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규제개선 로드맵 설정 △규제 개선 과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와 친환경·디지털 대전환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중진공은 전국 33개 지역별·지부를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지 기자 sunrise@

**스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전 직영점 10% 청구 할인  
교보인고, 캠퍼스, 영풍인고, 만디엔투스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 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카啡트,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미트 등 10% 청구 할인  
SK, KT, LG+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더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F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배분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계좌인증
- 6 신청완료 카드배송 시작

후보자 유의사항  
\* 후지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담보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선 상품명세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회수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략안 기준 주주배분수수는 0.145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믹스 상폐 '가처분 공방' 팽팽... 7일 최종 결론

## 법원, 가처분신청 심리 진행

위메이드와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믹스(WEMIX) 상장폐지 결정을 앞두고 거래 지원 종료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회(DAXA, 닥사) 회원사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심리를 진행했고,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일 오후 8시 위믹스 상장폐지 전날인 7일 밤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또는 기각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주요 쟁점은 △위믹스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량 차이가 중대한 위반인지 △위메이드가 유통량 차이를 바로 잡았는데도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소명자료가 신뢰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위메이드 발송 메일에 "고지 없이 유통한 것 맞다" = 가처분신청 심리에서는 위메이드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위메이드 측은 "문제가 된 코코 아파이낸스 담보 건을 회수하고 코인마켓캡과 연동해 유통량을 공시하도록 후속 조

위믹스 "유통량 정보 수정 완료 신뢰 훼손 이유 알리지 않아"

닥사 "다르게 공시하는 것 문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 종료"

투자자, 협의체 꾸려 법적투쟁

치했다"라면서 "신뢰가 훼손된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닥사가 요구한 유통량 정보 수정도 완료했지만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이 나왔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거래소 측 소송대리인들은 "유통량 기준이 불분명하더라도 공시 의무가 있다"라면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될 경우 가격하락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지원 종료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 측은 소명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명 과정에서 위메이드 쪽에서도 초과발행 인정했다"라면서

##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 일지

10월 27일	닥사, 투자유의 종목 지정
29일	위믹스, "소명 및 대책 발표"
30일	위믹스, 유통량 고시 시스템 보완 대책 발표
11월 2일	장한국 대표 "거래소를 따를 것"
10·17일	닥사, 투자유의 종목 연장
24일	닥사, "위믹스 상장폐지" 발표
25일	장한국 대표 "거래종료 불복" 법정 대응
12월 8일	닥사, 상장 폐지 예정



서 "이후에도 유통량 맞지 않는 게 소명 요청했는데 직원의 실수라고 변명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비트는 가처분신청 심문이 끝나고 난 오후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위메이드가 업비트 측에 보낸 메일 중 일부 내용이 포함됐다. 메일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기존 유통량 계획표에 대한 별도 수정 공시 및 귀사에 대한 고지 없이 유통한 것은 맞다"라면서 "유통량 변경 시마다 수정 공시 및 사전 고지가 필요한지 절차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해 방치한 부분은 담당자의 무지"라고 설명했다.

◇위믹스 투자자, 상장 폐지 결정 철회

촉구 = 가처분신청 심문이 열린 2일 법원 밖에서는 투자자들이 위믹스 투자자들이 강남구에 있는 업비트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투자자들은 △'졸속상폐 철회하라' △'상장폐지 가이드라인 공개하라' △'닥사는 회의내용 공개하라' △'업비트의 횡포는 사필귀정' △'사전유출 해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위믹스 존버남' A씨는 "이번 상장 폐지 결정에 공정함과 상식이 없었다"라며 "집회의 목적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떼쓰기'가 아니다"라면서, "(상폐)과정이 원칙에 의한 결정이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하고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에 보조 참가하는 형식으로 법적 투쟁도 진행 중이다. 협의회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코인구조대' B씨는 "일단 위믹스 상장폐지를 막아 투자자 손실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소송에 들어갔을 때 내용에 따라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협의체 구성인원은 3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따르면 가장 피해 규모가 큰 피해자는 위믹스 약 400만 개를 보유하고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처분 심리에서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거래 정지 종료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유예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거래소 측은 "거래 지원을 유지하면 투자자 보호 회피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면서 "채권자(위메이드)가 신뢰 회복하면 다시 거래될 수도 있는데, 유의 종목으로 거래 지원 유지하면 사전세력에 대한 위협성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이시은 기자 zion0304@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 非 MMORPG 게임 돌풍 불까 소울라이크·루트슈터 출격대기

네오위즈 'P의 거짓' 기대작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채비  
장르 다양화로 돌파구 마련

국내 게임업계가 내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넘어 장르 다양화를 통해 시장 확대와 실적 반등의 전략을 펼친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고 점점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침체에 빠진 게임 시장의 반등을 꾀할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게임사들이 2023년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출시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올해 출시됐던 신작의 부진이 게임사들의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만큼 내년 발표될 신작의 흥행이 실적 반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비 MMORPG 게임들이 시장 확장 등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네오위즈의 'P의 거짓<사진>'은 탈 MMORPG의 대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P의 거짓'은 피노키오를 모티브로 삼아 어른들의 잔혹 동화로 재해석한 소울라이크 장르 게임이다. 세계 3대 게임쇼인 독일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차지하면서 파란을 일으켰고, 지난달 '지스타 2022'에서도 인기 시연작으로 꼽혔다. PC뿐 아니라 콘솔 기기로 출시해 플랫폼 다양화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소울라이크 장르의 특성을 잘 살린 게임의 높은 완성도로 게이머들과 투자자들의 관심도 상승"이라며 "게임 흥행 규모에 따라 내년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가가치의 추가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네오위즈는 'P의 거짓'에 앞서 겸

프스엔이 개발 중인 모바일 RPG '브라운더스트2'를 선보일 예정이다.

넥슨은 콘솔과 PC를 아우르는 멀티플랫폼 기반의 3인칭 루트슈터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언리얼 엔진5로 구현한 고품질 그래픽을 바탕으로 액션성 넘치는 협동 슈팅 게임(CO-OP), 지속 가능한 RPG를 추구한다. 지난 10월 스팀 베타 테스트를 거친 '퍼스트 디센던트'는 마지막 개선 작업을 진행한 뒤 내년 글로벌 출시할 예정이다.

지스타 2022에서 호평을 받은 '파라곤: 디 오버프라이'는 넷마블의 부진한 실적을 반전시킬 핵심 카드로 꼽힌다. 3인칭 슈팅과 진지점령(MOBA) 장르를 결합한 파라곤은 넷마블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PC 게임이다. 8일 PC 스팀과 에픽게임즈스토어에 얼리엑세스(앞서해보기)로 출시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또 넷마블은 액션 배틀로열 장르인 '하이프스쿼드'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MMORPG 장르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엔씨소프트는 난투형 대전 액션 '프로젝트 R' 출시를 준비 중이다. 수집형 RPG 'BSS' 등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지는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 41개 중 비 MMORPG 게임은 24개"라며 "내년은 신작 출시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비 MMORPG의 다양한 장르가 출시될 예정으로 국내 게임 장르의 다양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수현 기자 int1000@



## 5G 기술·서비스로... SKT, 글로벌 시상식 석권

ICT·모바일 어워드 잇단 수상

SK텔레콤이 수준 높은 5G 서비스와 첨단 인프라 기술로 올 연말 글로벌 어워드를 석권했다.

SK텔레콤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2022'와 온라인 시상식으로 진행된 '리딩 라이트 어워드 2022'에서 각각 차세대 코어망 기술과 5G 서비스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ICT 연구기관 '인포마(Informa)'가 주관하는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2022'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ICT 분야 대표적인 시상식으로, 지난 2일(한국시간) 총 23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들을 선정했다.

SKT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선도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최우수 가상화 혁신' 분야에서 수상했다. 시스템 경량화를 통해 초고속·대용량의 5G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코어망을 상용화하고, 패킷 가속 처리·경로 최적화·다중 흐름 제어 등 최신 기술들을 고도화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SKT와 에릭슨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베어메탈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 코어망은 기존 물리 기반 코어 대비 트래픽

처리 효율을 최대 50%까지 향상시켰고, 산업현장의 통신 장비 증설과 급격한 트래픽 증가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SKT는 이번 수상으로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에서 6년 연속 수상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6년 동안 5G 상용화 및 연구 개발 성과, VR 서비스, IoT 솔루션,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등으로 다양한 수상부문을 두루 섭렵하며 사업 역량을 인정받았다.

SKT는 세계적인 모바일 어워드인 '리딩 라이트 어워드 2022'에서도 '올해의 5G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됐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인디게임·청소년 후원... 엔씨소프트 나눔활동 활발

이주여성 카페 운영 지원

야구 꿈나무에 용품 기증

국내 대표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사회 공헌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수백곳의 인디게임을 후원하는가 하면 청소년 및 이주여성 등을 지원하며 나눔 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4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나눔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회사가 위치한 성남시뿐만 아니라 창원 등 전국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본사가 자리잡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성남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글로벌 인디 게임 공모전 '인디크래프트'를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인디크래프트가 시작된 2019년부터 4년간 끊임없는 지원을 통해 올해 총 300여개의 인디게임을 후원하는 등 최고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성남시에서는 청소년과 이주여성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구성원에게도 손길을 내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교육격차 및 돌봄 공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과 함께 청소년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협력하

고 있다.

본사 사옥 내에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과 함께 운영하는 다문화 카페공간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비영리 재단과 프로야구단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해 2012년 설립한 NC문화재단은 서울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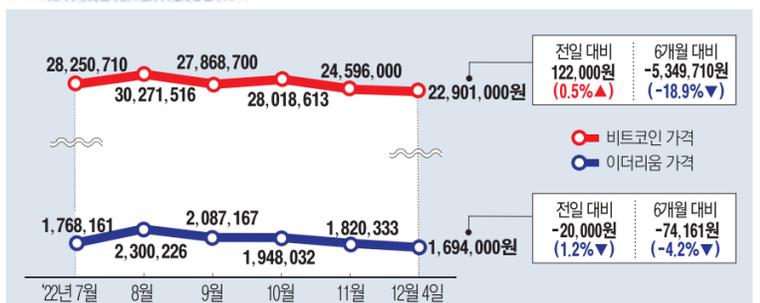
한 창의활동 공간 '프로젝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창단한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는 야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미션을 이행 중이다. 특히 연구지역의 야구 꿈나무들을 위해 학생들이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스쿨데이'를 진행하고, 중·고등학교 야구 팀에 야구 용품도 꾸준히 기증한다.

조성준 기자 tiatio@



빗썸 지수(2022년 12월 4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
비트코인캐시	149,600	1,100 (0.7%▲)	이오스	1,252	-1 (0.1%▼)
리플	526	3 (0.6%▲)	트론	72	-1 (1.4%▼)
솔라나	18,130	-70 (0.4%▼)	스텔라루멘	117	-
에이다	431	3 (0.7%▲)	비트코인에스비	56,650	600 (1.1%▲)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초읽기... 부동산 하락장 멈출까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안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노후 단지들이 들쭉거리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 규제 대목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고 집값 역시 반등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 반등을 가져올 수 있어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뒤집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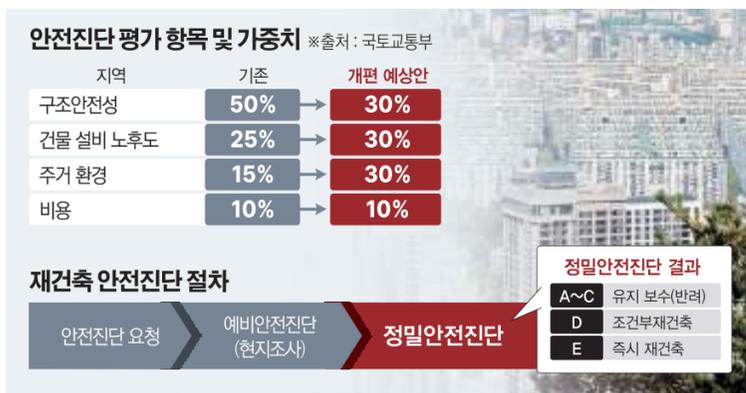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선 을하반기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노후 단지들이 예비안전진단 신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에만 최소 4곳 이상이 재건축에 뛰어들었다. 정부의 연내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경기 하락에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는 오는 17일까지 예비안전진단 신청서를 받아 이달 말 강남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양평현대2차'는 지난달 18일 영등포구청에 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하고 예비안전진단 접수를 완료했

국토부, 이르면 이번주 개선안 발표 하반기 최소 4곳 이상 재건축 추진 안전진단 규제 완화감에 사업 박차 재건축 단지 중심 '집값 반등' 기대 "금리 등 약재...반전 어렵다" 의견도

다. 이 밖에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우성'과 금천구 독산동 '독산주공14단지' 역시 지난 10월 관할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렇듯 최근 부동산 시장 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최대 10%포인트(p)를 가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재건축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구조 안정성 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이를 원래 수준인 20%까지 낮춰 재건축 안

전진단 통과를 수월하게 하는 셈이다. 구조안전성은 건물 기둥, 내구력, 기초 침하 등 아파트 구조에 대한 평가로 현행 기준상 건물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수도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규제 완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가 커지면서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는 일제히 호가가 뛰었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도 반짝 반등했다.

그럼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정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반전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일부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상계동이나 목동에선 일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서울 전역과 1기 신도시 전체까지 훈풍이 불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건축이 더딘 건 안전진단 때문이 아니라 정부 마스터플랜 부재와 시장 상황 때문으로 단순히 안전진단 완화만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박멸을 잡는 다른 규제가 여전히 집값 반등이나 재건축 활성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송도 아파트값 추락에... 외국인 7억 손실 '눈물의 매도'

계속된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 매입했던 외국인들도 손을 떼는 모양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짙어지자 큰 가격 손실을 감수 하더라도 매도하는 사례도 나왔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역시 계속해서 줄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트원푸르지오' 전용면적 106㎡형(39층)은 지난달 18일 9억 원에 매매 거래됐다.

본지가 이 매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도자는 92년생 중국인 A씨로

'송도아트원푸르지오' 전용 106㎡ 작년 16억 매입, 올 9억에 되팔아

인천 연수구 집값 44주째 내리막 외국인 거래 1년반 만에 '반토막'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이 매물을 15억9500만 원에 사들인 바 있다. 이는 당시 해당 아파트 같은 평형 신고가 거래로, 이전 신고가였던 지난해 3월 12억5000만 원(32층) 대비 약 28%(3억4500만 원) 높은 금액이다.

A씨는 이 매물을 올해 4월 19일 보종금 1억 원, 월세 28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결국 지난달 18일 9억 원에 되팔았다. A씨가 처음 매입했던 금액과 비교하면 사실상 6억9500만 원 손해를 본 것이다.

송도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편법 거래 가능성이 작은 중개거래고, 집주인이 중국인이어서 증여 등도 불가능하다"며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정부가 외국인들의 불법 자금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단속하겠다고 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송도는 지난해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송도가 있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11% 떨어졌다. 연수구 아파트값은 올해 1월 24일 하락 반전한 뒤 4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자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도 줄고 있다. 10월 전국기준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등) 거래량은 전체 10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 추이  
※ 단독·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등



아파트값 상승기 당시 최고치였던 4월 2177건 대비 약 50%(1085건) 급감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5월 1985건 이후 △6월 1635건 △7월 1338건 △8월 1255건 △9월 1192건 △10월 1092건 등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김대현(왼쪽 첫 번째) 기획총괄 사장 등 호반그룹 임직원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시작하기 전, 사진제공 호반그룹

## 호반그룹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임직원 100여명 '사랑의 연탄 나눔' 서울 화훼마을에 연탄·생필품 전달

호반그룹의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했다.

호반사랑나눔이 봉사단은 3일 서울 장지동 화훼마을에서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 김대현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 호반건설, 대한전선 등 호반그룹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호반사랑나눔이는 20여 가구에 총 6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아울러 쌀

600kg, 김치 600kg, 라면 183박스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내년 1월까지 1200장의 연탄을 추가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마을 분들이 지난해 여름에 폭우 피해를 입었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며 "호반사랑나눔이 봉사단이 전달한 연탄과 생필품들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반사랑나눔이는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다. 2009년부터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매월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말에는 사랑의 김장, 사랑의 연탄 나눔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금주의 분양캘린더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2만200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총 15개 단지에서 2만2007가구(일반분양 1만278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

이 레디언트', 경기 파주시 당하동 '호반써밋 이스트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총 16개 단지에서 청약당첨자를 발표한다. 6일에는 경기 용인시 죽전동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와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역 서한포레스트'가 당첨자를 발표한다. 7일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 더리브 스카이'가 당첨자를 가린다. 계약 진행단지는 총 14곳이다. 경기 평

택시 서정동 '평택고덕 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는 7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대전 서구 용문동 '대전 에데르 스위첸'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8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4곳이다. 대전 중구 선화동 '힐스테이트 선화더와이즈', 울산 중구 북산동 '변영로 서한이다음프레스티지' 등 4곳이 견본주택을 연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2/7 (수)	접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포레스트2단지(영구임대) (~12/9)	12/7 (수)	발표	인천	서구	원당동	인천검단AA10-2(영구임대)						
					경기						파주시	당하동	호반써밋이스트파크 1순위	대전	서구	용문동	둔산더샵리프 (~12/13)
12/5 (월)	계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파크솔레이유 (~12/8)	12/5 (월)	접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2순위						
					서울						은평구	중산동	힐스테이트DMC역(민간임대) (~12/7)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1순위 (기타지역)
					서울						종로구	중화동	리버센SK부롯데캐슬 (~12/8)				충남
					경기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12/7)	경기	양주시	덕계동	
12/6 (화)	발표	경기	파주시	동파동	호반써밋이스트파크 2순위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A25(행복주택)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숭매데시앙 1순위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파크리크스(A51-1) (~12/12)		
12/7 (수)	접수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어울림파밀리에 1순위	12/7 (수)	계약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파크리크스(A51-2) (~12/12)						
					경기						성남시	북정동	성남북정1B3(사전청약)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파크리크스(A52) (~12/12)
					경기						용인시	죽전동	e편한세상죽전프리미어포레				인천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역서한포레스트	대전	중구	선화동	
12/9 (금)	발표	대전	서구	용문동	대전에데르스위첸 (~12/8)	12/9 (금)	접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2순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1순위 (기타지역)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금호어울림리더스파크 2순위
12/10 (토)	계약	광주	서구	쌍촌동	쌍무더제아텔리움57센트리에(~12/12)	12/10 (토)	계약	충남	천안시	불당동	힐스테이트불당더원 ♣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숭매데시앙 2순위	충남	천안시	불당동	힐스테이트불당더원 ♣
12/10 (토)	발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더리브스카이	12/10 (토)	계약	광주	서구	쌍촌동	쌍무더제아텔리움57센트리에(~12/12)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어울림파밀리에 2순위	전남	대입구산이교신용PARK 2순위		

(주1) \*♣=도시형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R114

# 달러 리보 계약 전환 91% 완료... 대체금리 안착은 '글썸'

## 내년 7월 달러 리보 산출 중단

전 세계 금리의 기준이 됐던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적용 금리)가 내년 7월 최종적으로 산출이 중단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은 대체금리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미국 달러 리보 관련 금융계약의 전체 4만3572건(1178조4000억원) 중 91% 가량이 전환 완료됐다. 금융당국은 잔여 계약 건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종료 및 전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남아있는 계약의 경우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신디케이트론과 같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전환을 시킬 수 없는 계약들이 있어 향후 추이를 보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리보기반으로 홍콩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신디케이트를 조달한 국내 기업의 경우 해당 금융사에서 "아직 해외에서는 달러 리보가 나오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韓, 무위험 지표금리 KOFR 개발

시황 반영·낮은 조작 가능성 호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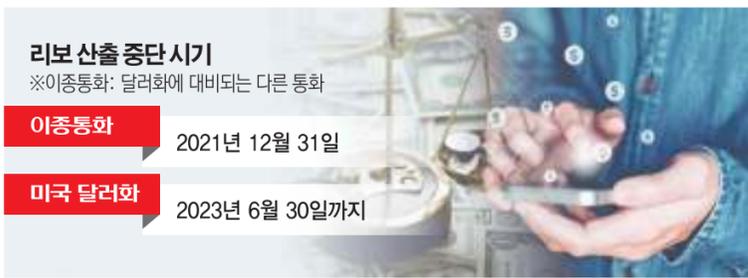
## 신디론 조달 일부 기업, 전환 거부

금융당국 "향후 추이 보고 대응"

리보는 외화대출·파생거래 등 기준금리로 국제 거래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지만, 지난 2012년 일부 은행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리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됐고,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된다.

우리 금융당국도 리보 산출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관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리보 관련 계약을 대부분 종료하거나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TF 초반 한 달에 1~2번 가장 대응 회의를 가지며 대응에 나서왔지만 비(非)USD 리보 산출 중단이 순조롭게 완료되면서 올해 들어서는 분기에 한번씩 금융위



리보 산출 중단 시기	
※이종통화: 달러화에 대비되는 다른 통화	
이종통화	2021년 12월 31일
미국 달러화	2023년 6월 30일까지

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실무자들이 모여 최종 마무리 작업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앞서 성공적으로 종료 또는 전환이 완료된 파운드·유로·엔화 등 비(非) 달러 리보 관련 계약의 경우를 보면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달러 리보 관련 금융 계약들도 큰 문제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리보 송출 완전 중단과 함께 리보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지표금리(RFR)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간 리보를 대신해 만기별로 CD(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금리, 코리보 금리(은행간

대출 금리), 국고채 금리, 우량회사채 금리 등이 지표금리의 역할을 나눠 맡아왔지만, 이들 역시 지표금리들의 금리 산정 구조를 들여다 보면 앞서 문제가 된 리보의 구조적 문제점들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CD금리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시중은행들이 CD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의 금융시장을 관할하는 금융감독당국과 금리를 관할하는 통화당국 등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미국의 'SOFR', 영국의 'SONIA', 일본의 'TIBOR'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위험 지표금리(KOFR)를 개발했다. KOFR는 장외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서 국제·통안증권을 담보로 익일물 RP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정식 산출 및 공시가 시작된 KOFR는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다.

올해 KOFR를 이용해 계산한 3개월 금리를 거래하는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을 상장했으며,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KODEXKOFR금리액티브(합성)ETF'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KOFR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장 올해 초 발행 예정이었던 KOFR 변동금리부채권(FRN) 발행 등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발행을 검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KOFR 변동금리부채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막상 시장에서 수요가 없었다"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당분간 발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금감원, 퇴직연금 자금유출 정조준... "연말 과당경쟁 자제하라"

## 유동성·금융시장 혼란 우려 자금 만기·고위험 자산 투자 등 운용 이상징후 발견 땀 현장점검

연말을 맞아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금유출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자체를 추구하고 있다. 운용상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4개 퇴직연금 사업자 및 46개 비사업자(상품판매제공자) 등 총 90개 금융사에 12월 금리 결정 시 상품 제공에 따른

비용과 운용 수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행정 지도를 했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기준 금리 상승과 자금 시장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서 연말 자금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12월에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집중돼 상품 제공기관 간 자금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한 다면서 이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들에게 자금 유출에 사전 대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이 만

기에 재에지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문제 및 금융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종합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운용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판매로 유입된 자금의 만기, 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 여부 등 운용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근거 없는 비방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제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 및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품제공기관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등 공

정거대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행정 지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8일 '퇴직연금 머니무브' 현상 등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특성상 쏠림이 생길 경우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며 "시장 기능에 존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금융사들은 지난달 말에 12월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 이동을 동시에 공시했다. 금리를 높게 쓴 회사로 연말에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금감원이 '커닝 공시'를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서지연 기자 sjy@

# 내년 車보험 1%대 ↓ 실손보험은 10%대 ↑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줄어드는 반면 실손보험료는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막바지 요율 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손보사는 내년 1월 계약일부터 보험료를 최대 1%대까지 내리고 나머지 중소형 보험사들은 각사의 상황에 맞춰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과 사고의 감소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점이 보험료 인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해 4~5월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3% 내렸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개사의 올해 1~9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4%다.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은 사업비 등을 고려하면 78~80%며 이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당국의 압박도 영향을 끼쳤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당정책위원회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촉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자동차보험 최대 실적을 이유로 손해율과 수익 등 인하 여력을 면밀히 점검해 보험료 조정을 감독할 계획이다.

해마다 오르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내년에도 인상될 전망이다. 고물가시대 고통 부담 차원에서 이뤄질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는 별개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42.5%에 이어 올해는 12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2조8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조5000억 원) 대비 14.4%(3600억 원) 늘어 수치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지연 기자 sjy@

# 회장 인선 앞둔 농협금융, 계열사 인사 단행

## "100년 농협 목표 인재 등용 초점"

연말 금융지주 회장 인사를 앞둔 NH농협금융지주가 계열사 인사를 실시했다.

4일 농협금융은 지난 2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농협은행 부행장 10명과 부행장보 1명, 농협생명 부사장 5명, 농협손보 부사장 4명이 임명됐다.

NH농협금융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높은 전문 지식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어 나갈 인재 등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은 이달 말 손병환 회장은 물론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 강성민 NH벤처투자 대표이사 등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와 관련해 NH농협금융은 지난달 중순 임원후보추천임원회를 가동해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했다.

NH농협금융의 임추위는 농협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빠르면 이달 중순 전 사

실상 차기 NH금융 및 계열사 CEO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현 손 회장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환·김광수 전 회장 등 과거 농협금융 회장은 2년 임기 후 1년 정도 더 연장한 사례가 있는데다 손 회장의 성과도 좋았다. NH농협금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대 금융지주 중 첫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전직 관료 출신 등이 낙하산으로 내려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벌써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나, 전직 관료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농협금융은 2012년 출범 이후 신충식 초대 회장을 제외하고 신동규(행정고시 14회), 임종룡(행시 14회), 김광수(행시 27회) 등 관료 출신 인사를 회장으로 선임해왔다. 손 회장은 신 회장 이후 처음 취임한 내부 출신 CEO다.

실제 임추위가 검토하고 있는 회장 후보 리스트에 전직 관료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연 기자 sjy@



유제철(왼쪽부터) 환경부 차관, 이재후 우리은행 대전충청영업본부 본부장,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가 2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한파대응물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 우리銀-환경부, 취약계층 1100가구에 '온정'

## 난방텐트·이불 등 방한물품 전달

우리은행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기후 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환경부와 한국 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주개발공사, ㈜리코 등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하는 한파대응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참여 기관들이 지원한 보온텐트, 난방텐트, 겨울용 이불 등의 방한물품은 홀몸 어르신, 차상위계층 등 겨울철 한파에 노출이 쉽고,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1100가구에 전달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후위기는 인류 전체의 문제지만, 취약계층에게 기후위기는 삶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 증시부진에 CMA 자금이탈... 증권사 돈줄 마른다

**CMA 잔고, 연초 대비 9兆 푼  
금리인상에 은행 예·적금 쏠려  
발행어음형 CMA 금리 높여도  
10월 말 12.7兆 찍고 감소세  
증권사 단기자금조달 경색에  
4분기 실적에 악영향 미칠 듯**

증권업계 인기 상품이었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자금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증시 부진으로 주식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최근 예·적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증시를 떠나는 투자자들을 붙잡을 최후의 보루였던 CMA마저도 힘을 못 쓰게 되면서 증권사들의 자금 경색이 더욱 심화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CMA 잔고는 60조41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69조908억 원)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CMA 계좌 수가 196만 개 넘게 늘어난 것

과 대조적이다.

일 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CMA에서 자금이 이토록 많이 이탈한 이유는 금리인상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 CMA에 머무르던 투자 자금이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은행 예·적금 상품 등으로 쏠리며 일명 '여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기준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금리는 연 4.01%로, 2009년 1월(4.1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를 넘겼다. 올 초 1%대였던데 비해서도 급격히 오른 수치다. 이 같은 고금리 기조에 5대 은행(KB국

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에만 19조710억 원이 늘었다.

물론 CMA 중에서도 한때 잔고 증가세를 보인 상품도 있다. 발행어음형 CMA다. 올해 1월 8조5143억 원이었던 발행어음형 CMA 잔고는 꾸준히 늘어 10월 12조 원을 넘겼다. 증권사들도 발행어음형 금리를 높여 가며 잔고 증가세에 힘을 보탤다. 한 증권사는 연 3.9%에 달하는 이율을 제공하기도 했다.

문제는 발행어음형 CMA마저도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행어음형 CMA 잔고는 10월 말 12조7000억 원에서 이달 1일

기준 12조2000억 원대로 감소했다.

한편 가뜩이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증권업계의 돈줄이 더욱 말라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증권사들의 자금 경색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승권 KB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여러 유동성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단기자금조달 시장의 경색완화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고, 보유 투자 자산의 손상 인식 여부 역시 4분기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 힘빠진 '킹달러' ... ETF 투자자 '희비'

원·달러 환율이 최근 하락하면서 달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ETF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5.69%로 나타났다. 정방향 ETF들은 모두 4~8%대 하락률을 보였다.

반면 달러 인버스2X ETF 평균 수익률은 17.41%로 집계됐다. 일반 인버스ETF도 8%대 상승했다. 이 기간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2X'에만 3310억 원의 거래대금이 물리는 등 약달러 장세에 편승하는 시장 움직임이 포착됐다.

달러 관련 ETF의 수익률은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과 밀접하다. 이달 2일 기준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29.90 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10월 25일 1444.20 원에 육박했던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지난달 중순 상승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환율 하락기에 인버스형 ETF가 각광 받은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근처까지 하

달러선물레버리지 평균 -16%  
약달러 베팅한 인버스는 '수익'  
증권가선 내년 '상고하저' 전망

락하자 다시 달러 상승을 기대하며 환노출형 ETF를 사들이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하기 시작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개인은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를 67억 원 순매수했다.

지난달 29일 환노출형으로 출시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단일 종목 ETF도 2일까지 개인이 각각 24억 원, 15억 원, 1억 원 순매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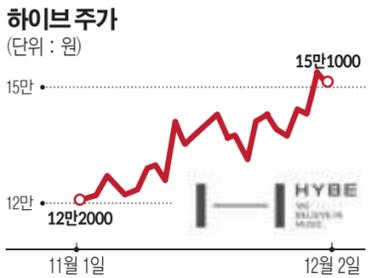
증권사들도 향후 환율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내년 원·달러 환율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원·달러환율이 상반기에 1400원 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을 기존 1400원에서 1310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1분기에 고점을 확인한 후 하락한다는 전망을 유지했다.

NH투자증권은 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 밴드를 1140~1420원으로 책정했다. 1분기 평균 1350원대로 고점을 보이다 이후 서서히 우하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까지는 겨울철 에너지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부진, 수출 증가율 둔화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이 남아있다"면서도 "현재 환율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기대와 맞물린 연준 긴축 사이클 후반부를 반영해 고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1분기 1340원까지 상승한 뒤 2분기 1300원, 3분기 1270원, 4분기 125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소비자물가는 서서히 하락하겠지만 2023년에도 연준 물가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주요국과의 금리차가 미국 달러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높은 변동성과 신흥국 불안도 달러 선호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 2.3억株 의무보유 해제에 투자자들 주가급락 주의보

**인디에프·하이브 등 58개사  
최대주주 물량 쏟아질 수도**

국내 증시가 박스피에 갇혀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2억 주 이상의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해제를 앞두고 있어 주가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디에프,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등 최근 등락이 컸던 종목들 외에 기업공개(IPO) 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들의 의무보유 해제도 잇달아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주기가 요구된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58개 사의 2억2551만 주가 이달 중 해제될 예정이다.

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직전 달(1억6922만 주)보다 33.3%, 전년 동기(1억8698만 주) 대비 20.6% 증가했다. 증권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9개사 5889만 주, 코스닥 시장에서 49개사 1억6662만 주가 예정돼 있다.

의무보유 등록이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통상 의무보유가 해제되면 기관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묶여있던

물량을 시장에 풀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주시 시장 단기 약재로 통한다

인디에프는 총 발행주식(7071만2995주)의 16.66%에 달하는 물량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8일 해제된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수익률 상위 종목에서 의무업체인 디에프는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고공행진을 경험했던 만큼 의무보유 해제는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9일에는 하이브의 의무보유 물량이 해제될 예정이다. 총 발행주식 수의 5.57%(230만2570주)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다음날 코스닥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총 발행주식의 3.30%에 달하는 물량이 해제되며, 신라젠 역시 13일 전체 발행주식 수의 3.65%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

물론 보호예수 해제 이후에도 기관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매도에 나서더라도 투자자들이 받아낸다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최근 상장에 나선 종목들의 경우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아 차익 실현 가능성이 당장 크지는 않다"라며 "일반투자자들은 락업 해제 후 최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 마켓 1인치

## “증권가 꽃”은 옛말... 애물단지 된 애널리스트

# 금융투자시장은 복잡하고 때론 어렵기도 합니다. 투자자·회사·정책이 얽히고설킨 시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슈가 발생합니다. '마켓 1인치'는 여러가지 변수와 이슈가 상존하는 금융투자시장의 이면을 담아, 자칫 놓치기 쉬운 '1인치'를 조명합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금융투자분석사)는 총 1066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만 해도 애널리스트 숫자가 1575명이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10여 년 만에 500명 넘게 줄어든 셈이다.

사실 애널리스트와 리서치센터의 '위 기론'은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다. 이들은 증권사의 법인 고객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며 법인영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법인영업보다 투자은행(IB),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다른 부서의 수익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리서치센터는 '비용' 부서라는 인식이 생겼다. 증권사가 어려울 때마다 이들이 구조조정 1순위로 거론되기 시작한 거다.

A 애널리스트는 "법인영업이 잘되려면 펀드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상장지수펀드(ETF)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수익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 대신 유튜브, SNS 등 투자 정보를 얻을 창구가 늘어난 것도 애널리스트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든 요인이라는 거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 IB·PI 중심 수익비중 확대에 리서치·법인영업 철수 잇따라 애널리스트 수도 12년새 500명 줄어

이 떠나는다"는 자조 섞인 한탄마저 나온다.

애널리스트의 낮아진 위상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4일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59개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한때 '증권사의 꽃'이라고 불리던 이들이 있다. 바로 애널리스트다.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수익 원대 연봉을 자랑하며 선망받는 직업으로 꼽혔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이 무색하게도 애널리스트와 리서치센터의 입지는 나날이 좁아지고 있다.

최근 케이프투자증권은 리서치센터와 법인영업부 사업을 접기로 했다. 대신 투자은행(IB)과 자기자본투자(PI) 부문에 집중하겠다는 거다. 법인영업보다 IB와 PI 부문의 수익성이 더 좋다는 얘기로 비치는데 사실 이런 수익구조는 다른 증권사도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부동산 PF에서 비롯된 회사의 위기인데 책임은 리서치센터와 애널리스트들

## 3분기 증권사 당기순익 '반토막'

**1.4兆 1년 새 43% 급감**

증시가 부진한 데다가 부동산 경기가 약화되면서 증권회사의 영업실적이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3분기 58곳의 증권회사 당기순이익이 1조438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8% 감소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전년 동기보다 5.0%포인트(p) 하락한 5.8%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수수료 수익은 2조 9355억 원이다. 이 중 수탁수수료가 1조

1878억 원,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는 9926억 원, 자산관리부문 수수료는 2858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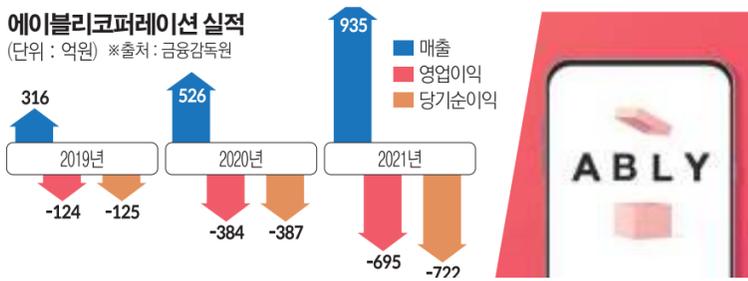
자기매매손익은 1조2013억 원으로, 이 중 주식관련손익이 4829억 원, 채권관련손익은 212억 원, 파생관련손익은 6971억 원이다. 기타자산손익은 8027억 원, 판매관리비는 2조6392억 원이다.

3분기 말 전체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669조5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3% 증가했다. 부채와 자본은 같은 기간 각각 2.5%, 1.3% 증가한 589조3000억 원, 80조 2000억 원이다.

문수빈 기자 bean@

# “출혈경쟁 더는 못해”... 수수료 고지서 내민 패션 플랫폼

고객유치 위해 무리하다 수익 악화 잇단 투자자몹 '내실 다지기' 주력 에이블리, 4년 만에 매출액 3% 부과 무신사, 내년부터 1% 받기로 결정



출혈 경쟁으로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던 패션 플랫폼들이 수수료 부과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나섰다.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 위기가 거론됨에 따라 투자 유치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서둘러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에이블리는 이달부터 서버 이용료 명목으로 받던 월 4만9000원 대신 매출액의 3%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론칭 4년 만에 부과되는 첫 판매자 수수료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수익 구조 정상화 차원에서 소호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며 “여성 패션 플랫폼업계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쟁사들이 5%에서 10%까지 차등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비해 수수료가 낮다는 설명이다.

무신사의 한정판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도 내년부터 구매 수수료 1% 부과를 결정

했다. 2020년 론칭한 솔드아웃은 이달부터 창고 보관 상품의 구매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1%를 부과했다. 이번 구매 수수료는 일반 구매자 대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다만, 판매자가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는 무료다. 무신사 관계자는 “서비스 론칭 후 그동안 무료 이벤트였고, 더 안정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패션 플랫폼의 수수료 부과가 처음은 아니다. 네이버 크림은 올해 4월 일부 상품에 대한 구매 수수료 1%를 책정했다. 이어 6월 1일부터 2%로 변경했고, 8월에는 그동안 무료였던 일반 판매자 대상 판매 수수료 1%를 부과한 바 있다. 또 네이버는 최근 패션 서비스를 쇼핑 타운 형태로 통합한 ‘패션타운’을 신설하며 그동안 무료였던 판매 수수료를 내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무료 수수료 정책으로 판매자와 고객을 유치해왔던 패션 플랫폼들이 줄줄이 수수료 부과에 나선 이유는 수익성 개선 때문이다. 과거 손해를 보더라도 덩치 키우기에 집중했지만, 업계를 장악한 현재는 출혈경쟁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또한, 대규모 투자금으로 몸집을 불려왔지만, 금리 인상과 유동성 위기로 돈줄이 말라붙으며 수익성 방어를 위한 과제가 됐다.

에이블리는 2018년 설립해 2020년 3월 누적 앱 다운로드 1000만, 올해 3월에는 3000만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 여성 패션 플랫폼 업계 1위로 평가받는다. 배경에는 대규모 투자가 있었다. 2019년 시리즈A로 70억 원을 유치한 이 회사는 2020년 7월 270억 원 규모의 시리즈B를 투자받았다. 작년 6월에는 620억 원의 시리즈B 익스텐션 라운드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최근엔 메릴린치 출신 이상민 실장을 영입해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손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에이블리의 2019년 매출은 316억 원에서 지난해 935억 원으로 3배 뛰었지만,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24억 원에서 695억 원으로 5.6배 늘어났다. 순손실도 125억 원에서 772억 원으로 커졌다.

남주현 기자 joo@

## 오리온의 ‘매출 효자 경쟁’ 닥터유, 초코파이에 첫 승

오리온 종합식품 브랜드 ‘닥터유’의 최근 성장세가 가파르다. 국내에서 오리온의 대표 효자 상품인 초코파이보다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 닥터유가 2008년 등장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기존 과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긴 전략이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오리온은 이 기세를 이어가 닥터유를 대표 브랜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4일 오리온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닥터유 국내 매출은 621억 원으로 초코파이 매출(620억 원)을 앞질렀다. 닥터유 매출이 초코파이 매출을 뛰어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초코파이가 오리온 매출 1위 자리를 고수한 점을 고려할 때 닥터유의 선전은 이례적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도 닥터유는 초코파이(10%)보다 13%포인트 높은 23%를 기록했다.

닥터유 매출은 매년 고공행진하고 있다. 2018년 266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20년(460억 원)에는 400억 원을 돌파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약 48% 상승한 680억 원을 달성했다.

맛과 건강을 모두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닥터유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닥터유는 2001년부터 오리온이 건강간 과자를 만들고자 진행해온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몸에 해로운 성분들은 빼고 부족한 영양소를 더하는 영양 밸런스에 초점을 맞췄다. 닥터유 프로젝트에는 서울대 가정

의학과 교수였던 유태우 박사와 서울대 국민건강팀이 참여하기도 했다.

운동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결과 닥터유 단백질 바는 출시 1년 반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개를 돌파했다. 올해 4월에는 매출액 25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월 매출액을 달성했다. 식품업계에서 히트상품 기준으로 꼽는 월 매출 10억 원을 2배 이상 뛰어넘었다.

지난해 리뉴얼 출시된 닥터유 제주 용암수도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닥터유 제주용암수는 갈습, 갈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올해 3분기 기준 닥터유 제주용암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늘었다.

닥터유는 해외에도 진출했다. 닥터유 에너지 바·단백질 바는 중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0년 현지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200만 개를 돌파할 정도다. 닥터유 제주용암수는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싱가포르 등에 수출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현대백화점은 내년 1월 8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 6층 복합문화공간 알트원(ALT.1)에서 현대미술 전시인 ‘비바 아르데’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새로운 예술세계를 개척해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 22인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그래피티, 팝아트 등 다양한 미술 장르의 작품 120여 점을 선보인다. 대표 작가는 오쿠다 산 미켈, 조이 무르가벨 등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 “맛도 몸도 따뜻하게”... 이색 겨울메뉴 한정판매

파파존스 치즈 소복 ‘스노우볼 피자’ CJ, 문어우동·육개장 갈국수 선풍 한술, 사골 우거지 곰탕 정식 출시

최근 식음료업계가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한정판 메뉴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파파존스는 스노우볼 피자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한정 판매한다. 스노우볼 피자는 2016년 열린 윈터 스페셜 레시피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레시피를 활용한 제품이다. 스노우볼 피자는 토마토소스 베이스 위에 미트볼을 올린 뒤 크림앤치즈 소스를 사용한 메뉴이다. 둥근 미트볼과 화이트 계열 크림앤치즈 소스가 함박눈이 소복하게 쌓인 풍경을 연상시키게 한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제일제면소는 겨울 별미 국수인 △겨울바다 문어우동 △육개장 갈국수 등 2종을 선보인다. 겨울바다 문어우동은 다시마와 훈연 가다랑어포로 우려낸 육수로 맛을 냈다. 여기다가 문어 다리를 통째로 올려 시각적인 재미까지 더했다. 육개장 갈국수는 얼큰한 국물에 갈국수, 소고기를 더해 깊은 맛을 낸다.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술은 12월 수량 한정 신메뉴로 ‘사골 우거지 곰탕’을 출시했다. 사골 우거지 곰탕은 국내산 배추 우거지와 소고기를 넣고 끓여낸 제품이다. 한술은 인기메뉴와 사골 우거지 곰탕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사골 우거지 곰탕 정식 시리즈 3종도 준비했다. 3종은 △빅치킨마요 사골 우거지 곰탕 정식 △제육 사골 우거지 곰탕 정식 △참치야채 감초고추

장 비빔밥 사골 우거지 곰탕 정식 등으로 이뤄져 있다. 맘스터치는 감자, 고구마를 연상케 하는 겨울 한정 이색 사이드 메뉴인 찰빵 2종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감자 모양의 ‘찐감자찰빵’ △고구마를 닮은 ‘찐고구마찰빵’ 등으로 구성됐다. 찰빵 신제품에는 각각 감자, 고구마 앙금이 있다.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는 지난달 연말 분위기를 자아내는 레드벨벳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과 달콤한 스웨를 더했다. 여기다가 바삭한 식감의 레드벨벳 크림을 넣었다.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는 미국 출신의 벽화 아티스트 ‘제시 앤 케이티(Jessie & Katey)’가 참여하기도 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신세계백 ‘빵’ 이어 ‘반찬’ 구독 서비스 론칭

구독 경제 모델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식·음료 분야까지 월 정액 모델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백화점 식품관의 반찬도 ‘구독’ 서비스로 만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5일부터 반찬 월 정액 모델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반찬 월 정액 모델은 한 달에 16만2000원을 내면 주 4회 제철 음식과 반찬, 국, 찌개까지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신세계는 지난해 10월부터 우수고객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반찬 구독을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게 확대 운영한다. 반찬 구독을 원하는 고객은 SSG닷컴 내 신세계백화점 식품관 반찬 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다. SSG닷컴에서 시화당을 검색하면 바로 해당 상품을 구독할 수 있다. 반찬 정기구독 서비스 론칭을 위해 신세계백화점은 25년 경력의 요리연구가 김재희 대표가 운영하는 시화당 브랜드와 손잡았

다. 김 대표가 직접 제철 음식과 절기 음식으로 식단을 짜고 재료를 선별해 요리한다. 메인 음식은 떡갈비, 갈치조림, 소불고기, 제육볶음 등 대중 선호 메뉴로 준비했다. 아욱국과 카레, 청국장과 묵국 등 각기 다른 취향에 맞춘 국과 찌개도 함께 포함한다. 반찬의 경우 꼬막무침, 유채나물무침, 오징어새송이조림, 돼지고기 마늘중볶음 등 제철 식재료를 사용했다. 메인 요리, 국, 찌개, 반찬 가격은 4만5000원이다. 주 4회 반찬을 구독할 경우 정기대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부문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최적화 기술 1위** → 12,312,000 가지 스펙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문의: 1544-8070 www.banggolf.co.kr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檢 ‘서해 사건’ 서훈 구속… 文 정권 뒷선 수사 분수령

### “월북몰이” 文정부 실장급 첫 구속 ‘박지원 소환 조사’ 등 확대 전망 前대통령 수사까지는 난항 예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 고위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기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조사 등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을 두고 향후 수사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원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서 전 실장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앞으로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빠르게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국정원장이 관련 첩보·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보고 있다. 사건의 정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에 있는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며 그 다음 ‘대북 안보 라인’인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를 준비하는 한편, 사건의 ‘정점’인 박 전 원장 소환 시기도 조율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8월 박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밖에 박 전 원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만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검찰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도 마무리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구속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각각 8일과 11일 석방됐다. 검찰이 서 전 실장 기소 시점에 맞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도 동시에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서 전 실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닿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측이 1일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표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만큼 검찰 역시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기자 abc123@



연이은 강추위에 고드름 맺힌 한강.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얼음이 얼어있다. 기상청은 예년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져 체온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범죄 수익 의심되더라도 기소된 범행 외 몰수 불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 및 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특별법인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에 있어서도 기소되지 않은 범죄피해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 스피싱 현금 수거책임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

재판에서는 범죄피해 재산이 기만 하면, 당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에 대해서도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 재산’으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취지와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법원은 기소된 당해 피고인이 범한 부패범죄의 범죄피해 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인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몰수



“보이스피싱 부패재산 몰수”  
1·2심 판결 파기환송한 대법  
“피해재산 여부 증명 안 돼”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반 형법상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기소된 공소사실과 원심 판결의 몰수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이 스피싱 조직원에 속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한 A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교부했다. A는 보이 스피싱 범죄 공동정범 중 한명인 B에게 여행용 가방과 함께 이 중 현금 1억 9600만 원을 전달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돼 B가 긴급 체포되면서 여행용 가방과 함께 1억3630만 원이 압수됐는데, 이 돈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이라는 점은 밝혀지

박일경 기자 ekpark@

## 法 “임용 공정성 문제제기한 교수 징계는 부당”

### “공고·면접 절차 없었다” 발언에 감봉 법원 “공공이익 대변” 징계취소 판결

동료 교수의 임용 절차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교수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대학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B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교수 5명을 대학회계교수로 전환 임용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A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B 대학은 2007년 인문학 연구 진흥을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HK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B 대학이 인문학 연구소를 설립해 그곳에서 일할 교수들을 고용하면, 10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교수들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B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연구소 교수들을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B 대학은 사업이 종료된 2017년에 협약대로 총 5명의 연구소 교수들을 B대 대학회계교수로 전환 임용했다.

하지만 B 대학 교수였던 A 교수는 2017년 교수회 총회에서 연구소 교수들의 전환 임용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4대 일간지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총장실 면접 심사 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A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B 대학 소속 교수 전원에게 수차례 전하기도 했다.

B대는 2020년 7월 징계위를 개최해 A 교수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권책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같은 해 9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수 전환 임용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하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고, B대 전임교수 등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대학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송석주 기자 ssp@

## ‘코로나 학습격차’ 현실화 하위권일수록 하락폭 커

코로나19 발생 후 학교 수업이 차질이 빚으면서 하위권 고등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의 성취도는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하위권 학생은 성취도 하락 폭이 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 평가 연구에 실린 ‘코로나19를 전후한 고등학생

수학 성취도 변화: 실태 및 영향요인’ 논문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학 척도 점수는 2019년 148.42점에서 2020년 146.68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척도 점수는 각기 다른 해의 시험을 본 집단의 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환산한 점수다. 두 시험의 난이도 차이 등 다른 요인의 영향 없이 집단의 능력 차이만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다.

평균 척도 점수가 하락한 것은 하위권의 성적이 떨어진 여파가 컸다. 하위 10%의 평균 척도 점수는 2019년 122점에서 2020년

113점으로 9점 떨어졌다. 반면 상위 10%의 평균 척도 점수는 2019년 171점, 2020년 172점으로 유사했고, 상위 50% 평균 척도 점수 역시 150점에서 149점으로 1점 낮아지는 데 그쳤다.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2019년과 견줘 2020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임 등 오락을 목적으로 한 전자기기 사용은 늘었고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은 줄었다. 오락을 목적으로 한 전자기기 사용 시간은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변수다. 손현경 기자 son89@

광고 심의필 : 2022-1626-0014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대한민국에 이런 겔 하나쯤 있어야지!

## 국민의 겔! 남궁민의 겔! 록소앤겔



### 테니스·골프 엘보우엔 **록소앤겔**

#### 테니스 엘보우 주요 증상

- \*팔꿈치 통증, 특히 주부들에게 발생
- \*팔과 손목을 쓰는 동작에서 통증



- 테니스 엘보우
- 손·손목 통증
- 어깨 통증
- 근육통, 관절통
- 타박상, 염좌(뺨)
- 요통

# 함영주의 고민? “구성원 행복 위한 CEO 역할은...”

〈하나금융 회장〉

## 하나금융그룹 ‘오은영의 일가양득’ 힐링 콘서트 열어

### 추첨으로 선발 임직원 500여명 주제별 고민 상담·즉석 질문 오 박사·함 회장 깜짝문답 “더 행복한 조직 만들기 위해 노력”

“우리 구성원들이 더 행복하게 될지 다 지금 고민을 하게 됐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직접 나섰다. 이 자리에는 ‘마음 해결사’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가 함께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임직원의 마음속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오은영의 일가(가)양득’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2일 인천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된 행사는 ‘일터와 가정 모두에서 행복한 하나’를 주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을 위한 조언가로 나서 다양한 고민에 대한 명쾌하고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이날 힐링 콘서트는 하나금융그룹 15개 관계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소속 회사와 남녀·직급 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발된 약 500명의 임직원이 현장을 가득 채웠다.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약 2000여 명의 그룹 임직원들은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 참여하는 등 ‘일일 마음 클리닉’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로부터 접수한 500여 건의 사연을 직장·가정·육아·나 자신의 주제로 나눠 고민 상담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즉석 질문을 통해 오은영 박사와 그룹 임직원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오은영 박사의 “회장님께서 고민이 없으신가요?”라는 돌발 질문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으로 깜짝 등장했다. 함 회장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떻게 해야 우리 구성원들이 더 행복하게 될지 다시금 고민을 하게 됐다”며 “하나금융그룹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CEO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라고 자신의 고민을 상담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하나금융그룹이 오늘과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부터가 보이지 않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들



함영주(맨 앞줄 왼쪽)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오은영(오른쪽) 박사가 2일 인천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오은영의 일가양득’ 힐링 콘서트에서 참석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여다보고 행복을 추구해나가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사와 구성원들도 서로 당연함보다는 고마움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힐링 콘서트를 마치고 함 회장은 “때로는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말자”며 “오늘 이곳에서 들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더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CEO로서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함 회장은 평소 직원들과 격의 없는 자리를 통해 편안하게 소통해왔다. 올해 3월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함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커넥트 하나(Connect Hana)’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좌석을 무작위로 배치해 참석자들의 성별, 직급, 나이, 부서 등 관계 없이 서로 교류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했다. 함 회장 역시 별도의 입장이나 단상 등 마련된 좌석 없이 직원들과 함께 객석에서 어울리며 소통했다.

함 회장이 충청영업그룹 대표 재직 시절 그룹 소속 1000여 명 임직원의 이름과 생일, 신상, 애로사항 등을 기억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재영 기자 lly0403@

## 삼성전기, 사이버폭력 예방 위한 ‘푸른코끼리 온라인 포럼’ 개최



장덕현(오른쪽 두번째) 삼성전기 사장이 매원초등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 근절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기

사진제공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제3회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포럼은 푸른나무재단, 교육부, 사랑의 열매와 삼성이 함께 진행 중인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푸른코끼리’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삼성전기를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등 5개 계열사가 지원한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폭력, 그리고 소멸’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실태를 공유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삼성전기는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해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예방 교육 보조강사와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 오늘 무역의 날, 삼성전자 ‘1200억 달러 수출 탑’

### 최우각 대성하이텍 회장·노은식 디케이락 대표 등 4명 금탑훈장

정부가 무역의 날을 맞아 무역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9회 무역의 날을 맞아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무역·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거둔 만큼 무역인을 격려하기 위해 총 597명에게 정부포상을 준다. 금탑 4명, 은탑 6명, 동탑 9명 등 산업훈장은 33명에게 수여된다. 포장은 31명, 표창은 533명에게 수여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종사자 60명, 중견기업 종사자 89명, 중소기업 종사자 397명으로 전체의 79%가 중소·중견기업 종사자다.



최우각 대성하이텍 회장



노은식 디케이락 대표



박학규 삼성전자 실장



정경오 히싱피오텍 대표

이번 포상 중 금탑산업훈장은 최우각 대성하이텍 회장,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학규 삼성전자 실장, 정경오 히싱피오텍 대표이사 등이 받는다.

수출의 탑 수상도 진행된다. 올해 수상

업체는 1780개사로 대기업 27개사, 중견기업 113개사, 중소기업 1640개사가 포함됐다. 삼성전자가 최초로 1200억 달러 수출의 탑을 받는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브라질과의 경기를 앞둔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이 4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일레클라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도하/연합뉴스

## 월드컵 16강 진출 후 윤 대통령과 통화한 손흥민 “나라 위해 한몫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주장 손흥민과 각각 통화하고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축하했다. 손흥민 선수는 “나라를 위해 한몫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벤투 감독에

게 “우리 팀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우리 선수들 인터뷰를 보니 벤투 감독님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감독님의 이런 리더십이 우리 선수들을 단결시켜 이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벤투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국민께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와의 통화에서 “얼굴은 괜찮느냐.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흑사라도 더 다치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다”며 현재 상태를 물었다. 이에 손 선수는 “나라를 위해 한몫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ij@

## 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와 상생협약



이마트24는 2일 서울 성수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마트24 가맹점사업자단체인 ‘경영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생 협약식에는 김장욱(오른쪽) 이마트24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해 박병욱(왼쪽) 경영주협의회 회장과 운영진이 참석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상생 협약식 체결을 통해 이마트24는 △결품 보상제도 확대 △자연재해 피해 점포 생활지원금 지급 △경영주 연중휴가 지원비 상향 △상조 서비스 할인 혜택 제공 등 다양한 상생 지원을 추가 및 확대하게 됐다. 조남호 기자 spdran@ 사진제공 이마트24

##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상황총괄담당관 이태석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유치지원담당관 이경호

◆해양수산부 ◇전보 △해양레저관광과장 권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장 최창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위원급 승진 △국가해양생물자원전략센터장 안용락 △해양바이오산업화본부장 안혜숙

◆농림부 ◇농협중앙회 상무 △나중수 △신영수 △문상철 △박상용 △정용왕 ◇농협중앙회 상무보 △남궁관철 △박흥연 △이재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경기본부 홍경래 △전북본부 김영일 △전남본부

부 박종탁 △경북본부 윤성훈 △제주본부 윤재춘 △부산본부 정병규 △대구본부 손원영 △울산본부 김창현 ◇농협경제지주 상무 △박서홍 △이병현 △이찬호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부행장 △강신노 △강태영 △금동명 △김길수 △박병규 △박수기 △장중환 △정재호 △최미경 △최영식 ◇부행장보 △황재현 ◇영업본부장 △경기 박옥래 △충북 황종연 △충남 백남성 △대전 이재운 △전남 정재현 △광주 박내춘 △경북 임도곤 △대구 이정훈 △경남 조근수 △부산 정찬호 △울산 이영우 △제주 고우일 ◇농협생명 ◇부사장 △김석찬 △박병희 △여운철 △윤해진 △이동근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강필규 △김준안 △오세운 △오정석

◆SK실트론 ◇임원 선임 △김광석 △김학승 △이병현 △지동욱

◆삼양그룹 ◇승진 △삼남석유화학 △

대표이사 이운익 △삼양사 △AMBU 영업PU장 박현호 △식품BU 영업PU장 이의도 △식품지원PU장 겸 삼양에프엔비 대표 박성수 △재정PU장 김현미 △베트남 EP) △법인장 김용관

◆티맥스 그룹 ◇부사장 승진 △김민석 티맥스메타버스 대표 △최성기 티맥스알지 대표 ◇전무 승진 △한성용 티맥스티베로 전략마케팅실장 △김성동 티맥스와플 전략마케팅실장 △허용진 티맥스티베로 공공사업본부장 ◇상무 승진 △주형진 티맥스티베로 PS1기술부장 △허승재 △PM본부장 △전우석 △금융3사업부장 △유현영 티맥스메타버스PM본부장 ◇상무보 승진 △변용영 티맥스오에스 OS연구본부장 △한병진 티맥스클라우드 CK연구본부장 △노필섭 티맥스티베로 MA사업부장 △성기훈 △기술본부 CS1실장 △조연철 △CS2실장

## 부음

▲윤차교 씨 별세, 남종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씨 모친상 = 3일, 경기 용인 신갈기흥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5일 오전 9시, 031-275-4444

▲서승원 씨 별세, 서동완(군산시의원) 씨 부친상 = 3일,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VIP 2호(3층), 발인 5일 오전 9시, 010-2614-0321

▲송관중 씨 별세, 송형일(전 광주시의원) 씨 부친상 = 3일, 광주 국민장례식장 301호, 발인 5일 오전 9시 30분, 062-606-4000

▲정중욱 씨 별세, 정강률(순천향대 교수)·강현(JTBC 정치부장) 씨 부친상 = 3일,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성서) 백합원(장례식장) 10호실, 발인 5일 정오, 053-258-4444

▲권경연 씨 별세, 권유경(종근당 제품

개발본부 임상담당 이사) 씨 부친상 = 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30분, 02-2258-5940

▲이선구 씨 별세, 이정복(한국전력 전 상생관리본부장)·선숙·선영·선경 씨 부친상, 이인철·신광호 씨 장인상, 남영우 씨 시부상 = 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02-3410-6931

▲반순연 씨 별세, 민경식·현식·경숙·경애 씨 모친상, 이우선·정영란 씨 시모상, 민병기(문화일보 정치부 차장)·병준(충북대 교수)·병수 씨 조모상 = 4일,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6일 오전 9시, 053-958-9000

▲김정경 씨 별세, 이승열(전 종로구청 주택과장)·맹열(대성금속 대표)·천열(서울신문 충청본부장) 씨 모친상 = 4일, 당진장례식장(살낙원), 발인 6일 오전 9시, 041-354-4444

연원호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2023년,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미국은 새로운 국제 수출통제 메커니즘의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과거 미소 냉전의 봉기와 세계화의 진전이 코콤(COCOM)의 해체와 바세나르 체제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과 같이,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의 첨예화는 수출통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더 이상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포함된 기존의 국제기구가 근본적으로 원활히 작동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제안보 관련 취약성 검토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100일 동안 반도체, 배터리, 희소금속, 의약품 4개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끝내고, 1년 후인 2022년 2월까지 국방, 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농산품 및 식품 등 6개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 실태 및 취약성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은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라는 것이었다.

2021년이 현황 파악의 해였다면, 2022년은 핵심품목별 대응 조치들이 취해진 해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21년 검토했던 4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과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체 구축이 실행되었다.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팹4(FAB4) 협의회', 배터리 및 희소금속 분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바이오 행정명령(EO 14081)'이 모두 2022년 하반기 발효되거나 구축되었

다. 2023년에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도 와 정책을 정비 강화하며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2022년 9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바운드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이미 2018년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외국인투자심사 권한을 강화하며 경제안보상 중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방어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의 기업이 미국기업에 대한 M&A 시도를 막는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기술, 인프라, 데이터(TID Business)' 관련성에 더해 '공급망상의 위험성'을 외국인투자심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했다. 또한 제3국 기업이더라도 미국이 정의한 우려 국가와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불허될 수 있음을 밝혔다. 상당히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한 이 규정은 향후 수출통제와 같은 다른 조치들과 연계하여 대중국 견제 스크럼을 짜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향후 미국은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통

제를 위해 새로운 심사제도 도입에도 나설 전망이다. 목적은 미국의 자금과 직접투자가 중국의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법제도화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논의는 이미 2018년도 수출통제개혁법(ECRA) 제정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2022년 2월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경쟁법의 일부로 포함된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NCCDA: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에서 확인된다. 최근까지도 제3국 기업에까지 역외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행정명령의 형태로 새로운 아웃바운드 투자심사 기구 및 제도 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새로운 국제 수출통제 메커니즘의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과거 미소 냉전의 봉기와 세계화의 진전이 코콤(COCOM)의 해체와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과 같이,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의 첨예화는 수출통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더 이상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포함된 기존의 국제기

구가 근본적으로 원활히 작동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향후 마음이 통하는 국가들과 함께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통제 국제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에 대해 미국에 준하는 독자적 수출통제제를 선언하며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의 예외를 인정받았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 개 국가들이 창립 멤버로 워싱턴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제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자유' 무역이 아닌 '신뢰와 가치'에 기반한 무역안보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11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 단계 초기에 포함되었던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동(free flow of cross-border data)"이란 문구가 2022년 9월 각국 장관이 합의한 버전에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trusted and secure cross-border data flows)"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상징한다.

기고

신대규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보안 취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의혈궤제'

(蟻穴潰堤)

깨진 유리창을 새것으로 교체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듯이 제조사는 취약점 패치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사용자는 이를 즉시 적용해 침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화한 디지털 대전환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등장으로 신규 취약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취약점 전문 업체 CVE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총 2만 142건의 취약점이 발생,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취약점을 신속하게 발굴·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일부 국내의 기업은 취약점을 찾아준 보안전문가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안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이용해 다양한 취약점을 보다 빨리 찾아내어 조치하려는 목적이다. 버그 크라우드에 따르면 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시 조직 내부의 보안 인력을 통해 점검을 하는 것 대비 7배 이상 효과적이다.

KISA는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8052건을 발굴하고 제조사에 패치 개발 및 배포를 독려했다. 또한 기업이 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스스로 운영하기 전까지 취약점 신고 접수부터 포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정보통신망법)상 위법인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발굴을 원하는 기업과 협업해 '핵심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기업 등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제품 사용자가 보안에 민감하지 않아 취약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해커는 이를 악용해 침해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2017년에 출현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경우 3일 만에 150개국 30만 대를 감염시켜 다수의 시스템이 손상됐다. 해당 취약점을 해결하는 패치는 이미 두 달 전에 발표된 상황이었으나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대량의 피해로 이어졌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이 지난해 발표한 '가장 많이 악용된 취약점'을 살펴보면 오래된 2018년, 2019년 취약점이 여전히 패치되지 않은 채 악용되고 있다. 관련 기업에

서 패치 개발의 역할을 다했더라도 이용자의 역할인 패치의 적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보안 수칙을 생활화해 취약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자동 업데이트 및 최신 패치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IoT 기기를 구매하고 펌웨어는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플랫폼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전국시대 위나라의 백규는 개미구멍만한 조그만 구멍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수시로 막아, 재상으로 있는 기간 위나라에 한 차례의 수재(水災)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개미구멍 하나가 큰 재방 독을 무너뜨린다"는 뜻의 의혈궤제(蟻穴潰堤)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한다. 아무리 비싼 보안 장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더라도 조그마한 구멍, 즉 취약점이 방치된다면 누구든지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존 디디온 명언 "내가 글을 쓰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 눈에 무엇이 보이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미국 소설가 겸 저널리스트다. 보그지에 디터로 일한 그녀는 다섯 편의 소설, 여덟 편의 논픽션 외에 한 편의 희곡과 다섯 편의 시나리오를 썼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미디어다'라는 신념을 가진 뉴 저널리즘의 거수다. 그녀는 그녀가 태어난 날. 1934~2021.

☆ 고사성어 / 심모원려(深謀遠慮) '깊이 꾀하고 멀리 생각한다'라는 뜻이다. 일시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이른다. 전한(前漢) 문제(文帝) 때 가의(賈誼)가 쓴 '과진론(過秦論)'에서 유래했다. 멀리 보고 전술을 꾸릴 줄 아는 대국의 장군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무기로 진나라 멸망의 불씨를 붙인 것은 가난한 농민들이라고 설파한 그는 한(漢) 왕조의 제도와 통치를 공고히 하는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깊은 계책과 원대한 생각과 행군하고 용병하는 방법이 지난날의 인사들에 미칠 바가 아니었습니다[深謀遠慮行軍用兵之道非及曩時之士也]."

☆ 시사상식/핀볼효과(pinball effect) 사소한 보이는 사건이나 물결이 도미노처럼 연결되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사건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제임스 버크는 "우연한 사건의 연쇄가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경제에 적용하면 경제성장을, 금리, 유동성,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키며 주가를 예상외로 크게 뛰게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 우리말 유래 / 노가리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다. 명태는 한꺼번에 많은 알을 낳는다. 그 수만개이나 알을 많이 풀어 놓는 것은 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뜻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채빈 / 사회경제부



'단단해진' 인파 대책 '성숙해진' 붉은 함성

었다. 종로구청의 안전관리 계획 심의는 한 차례 반려를 거쳐 보안 끝에 통과됐고, 서울시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야간시간대 안전 확보, 동선 관리 등 자문결과를 준수하는 조건 아래 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개최에 앞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여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도 오갔다. 그럼에도 광화문광장 거리응원은 기대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지난달 24일 우루과이전 거리응원에는 경찰 추산 2만6000명, 가나전 때는 3000여명, 이달 3일 포르투갈전 때는 3만 명의 시민들이 붉은악마로 변신했다. 결국,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성공적인 거리응원의 이면에는 철저한 안전 대비가 있었다. 서울시를 비롯한 소방, 경찰, 종로구청 등은 인파밀집·교통·한파·의료 등 여러 분야에 맞춰 안전 대책을 준비했다. 서울시는 현장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할 대응체계도 갖

췌다. 붉은악마는 광장 내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30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거리응원전이 끝나는 시간대에는 지하철역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 안전요원이 직접 나서 동선 관리에 힘쓰기도 했다.

철저한 안전 대책 덕분에 3차례의 거리응원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붉은악마 측은 "이번 거리응원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대규모 인원이 모여도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임을 국민들이 자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비단 이번 거리응원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중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에도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시기다. chaebi@

# 이론, 현실, 정책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 若烹小鮮 (약팽소선)

연세대 특임교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학은 '육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배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경제적 결정, 즉 소비, 투자, 분배 등의 모든 것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때 경제학은 쉽게 말해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해도 된다. 아울러 이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경제학은 현실에 토대를 둔 학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들은 모두 현실을 설명하는 측면이 강하며 문학 등 인문학과 구별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학은 연구 대상이 수량화, 계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론적 토대가 매우 현실적이고 결론도 수학적 엄밀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하는 속성 때문에 경제학 이론의 발전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현실에 대한 설명력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을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새로운 이론이 되고, 그것이 이전의 이론들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 이론이 행하는 현실에 대한 설명은 엄밀한 논리적(또는 수학적) 검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누구도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는 완전무결한 논리적 검증이 있어야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주장'이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 엄밀성을 갖췄음에도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그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여러 전제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이 이론이 상징하는 것만큼 논리적 '구조' 속에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비유하자면 주변환경이 완전히 갖추어지고 통제 가능한 실험실에서 도출되는 과학적 결론 같은 것이 경제이론으로 실험실 환경에 변화를 주면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경제이론의 현실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어떠한가? 정책은 당연히 '더 현실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정책이 이론보다 '덜 논리적'이라는 것이 아

니라 이론의 적용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론은 잘 짜여진 구조하에서 명확한 논리에 의해 도출되는 결론을 추구하는 반면 정책은 수시로 변하는 현실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때 이론의 세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임기응변식 대처, 창조적인 응용 및 변용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칼럼의 제목인 '약팽소선'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란 작은 생선을 굽는 바와 같이 세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자의 시대에 나라다스리는 일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심하고 신중하다는 것은 정책의 타이밍을 잘 맞추고 그 집행의 정도와 속도를 잘 정하는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면 금리인상 같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에서 이미 잘 밝혀져 있다. 다만 이론에서 확실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금리를 인상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책의 영역이며

유능한 정책 담당자는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인 것이다.

필자가 가끔 드는 예이지만 정책담당자는 축구경기에서 링커가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링커는 경기의 흐름을 읽고 공격과 수비의 시점을 잘 정하며, 공격 시점에는 가장 득점을 잘 할 수 있는 선수에게 공을 배급하고 수비할 때는 적의 공격수를 잘 막아내는 움직임 을 지시해야 한다. 물론 일반적인 전략 전술은 장외에 있는 감독이 짜는 것이지만 경기장 내에서 매순간 벌어지는 변화에 대처하여 좋은 경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링커의 역할이다. 전략에 해당하는 이론을 받아서 현실이라는 경기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담당자의 역할이라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정책은 이론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이론을 잘 적용해 풀어나가는 것이다. 이 점을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정책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국민들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특어, 특!

## 상표법으로 본 월드컵

지금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축구경기를 흔히 월드컵 경기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FIFA(국제축구연맹) 월드컵이다. FIFA가 주관하는 남자 축구대회인 규모가 가장 크고 유명하기 때문에, 럭비 월드컵이나 배구 월드컵, 농구 월드컵, 하키 월드컵은 물론 FIFA 여자 월드컵도 있지만 FIFA가 개최하는 남자 축구경기만 월드컵인 줄 아는 사람도 많다.

월드컵과 달리 올림픽은 여름 올림픽과 겨울 올림픽이 구별될 뿐 육상 올림픽이나 수영 올림픽이 따로 열리지 않는다. 인류가 즐기는 거의 모든 운동경기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대회 종목에 포함되어 어서이다. 올림픽은 대회 이름이자 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의 이름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응되는 이름을 월드컵축구대회에 붙인다면 FIFA 대회나 FIFA 남자축구대회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회 이름인 올림픽을 월드컵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면 메달을 두고 각 나라가 경쟁을 하므로 월드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FIFA나 올림픽(위원회)은 조직의 고유 명칭이므로 그 기구에서만 쓸 수 있으며, 월드컵이나 월드컵은 일반 명칭이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우승컵이나 메달을 겨루는 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이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축구협회가 족구를 여러 나라에 전파한 뒤 월드컵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고유 명칭은 그 이름을 가진 주체를 다른 대상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상표법에서도 FIFA 혹은 올림픽은 저명한 국제기구의 명칭이므로 다른 기관이나 사람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면, 월드컵이나 월드컵은 누구든지 선점하여 출원한다면 지정상품이 신발이든 가방이든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란 달리 말하면 일반 단어를 선택하는(삼성, 애플), 조어를 만들든(IB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원래 고유 명칭인 자신의 이름을 선택하는(Ford), 자신만이 쓸 수 있도록 확보한 고유 명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제3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비슷하게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마감 후

하유미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 20년의 땀, 가루쌀 탄생 비밀을 아시는가

질) 돌연변이 유전자 탐색하기 시작했다.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빵이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밀가루 대체재를 찾기 위해서였다.

연구원들은 무려 7000개의 돌연변이 계통을 확보했고 이들을 하나하나 눈에 심었다. 연구를 위해선 손으로 일일이 심고 수확하고, 왕겨를 벗겨 들여다봐야 한다. 이 과정이 있어야만 유전적으로 원하는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개량하는 '고정'이 된다. 유전적 고정 작업이 정말 더디고 힘든 이유다. 그렇게 6년이 걸렸다고 한다. 연구에 참여했던 한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주변에서 할 일이 없다는 등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생각한 바가 있어서 밀어붙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지난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품종이 쉽게 잘 빵아지는 '수원 542호'였다.

하지만 수원 542호가 병에 약해 농가에

보급하긴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병(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인 '조평'과 교배해 뽑아낸 품종이 지금의 '가루쌀(품종명 바로미2)'이다.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발견된 이례적인 품종이다. '바로'는 '바로 빵는다', '바로 사용한다' 등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구원들은 수원 542, 바로미2에 대한 특허 출원과 등록도 모두 마쳤다. 지식재산권을 방어해 원천 소재를 완벽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 도용 방지책을 마련한 셈이다. 시장 교란도 막을 수 있다. 이를테면 가루쌀이 인기 상품화해 수입쌀과 섞어 섞어 판매할 경우 유전자 검증을 하면 바로 적발할 수 있다. 그렇게 20년이 걸렸다.

가루쌀은 단순히 수입밀의 대체재가 아니다. 우선 쌀 소비량이 줄면서 활용 가치가 떨어진 논농사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다.

쌀을 소비하지 않는다고 눈을 없애버릴 경우 유사시 식량 안보 차원에서 다시 그 인프라를 갖추기도 어렵다. 또 가루쌀은 생육 기간이 짧아 다른 작물과 이모작도 가능하며 이는 향후 농가 소득도 높여줄 수 있다.

여기에 가루쌀 활성화를 위한 정책까지 받쳐줘 삼박자가 골고루 맞았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진흥청장 시절부터 가루쌀에 관심이 많았다. 정 장관이 내놓은 1호 정책 역시 '가루쌀 활성화'다. 대통령실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까지 가루쌀 탄생 배경과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국민들은 늘 불신, 불만이 가득하기 마련인데 가루쌀은 보기 드문, 박수 치고 싶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20년간의 노력과 땀을 알고 싶어서다. 필자 역시 비하인드 가루쌀 탄생 스토리를 듣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다. 가루쌀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원료곡이 되길 기대해본다. jscs508@

# 세움EAP는

행복하고 건강한 기업 및 가족 문화를 위하여,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멘탈헬스케어 전문기업입니다.

근로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학교 심리상담  
프로그램

상담사 교육양성  
프로그램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출국자를 향해 싸라!

# 첫 로밍

전 세계 187개국 어디에서나 내 번호 그대로 편리하게

baro 통화, 문자 무료

# 50% 할인

- | 1,500만원 여행상품
- | 면세점 상품권 100만원
- | UT 공항택시 10만원 쿠폰
- | 원스토리 10,000 포인트

## T roaming

지금 바로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

첫 로밍 50% 할인: 2023년 2월 28일까지 | 이벤트 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품 혜택은 T월드 내 T로밍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님 중 추첨. 일부 경품은 SK텔레콤  
및 제휴사 사정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혜택 이용 시 T로밍 baro 요금제 가입 필수)

